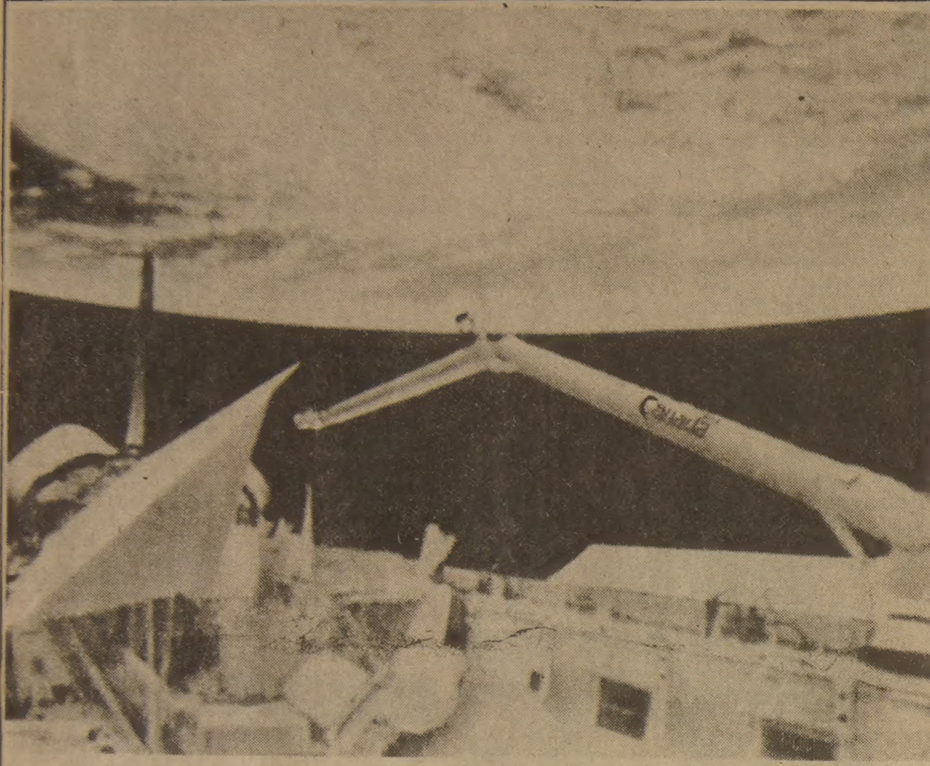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1 1981년 11월 1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1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캐나다에서 제작된 로보트 우주팔에 캐나다 마크도 선명하다. 토론토소재 스파·에어스페이스회사가 만든이 우주팔은 1억달러의 경비를 들여 8년간 제작된 것인데 12 월의 성능시험에서 성공했다

콜럼비아호 2번 연기끝 발사성공

비행시간 단축, 윤활유 오염으로

그동안 2번씩이나 연기됐던 미국의 유인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12일 상오 10시 10분 케네디우주센타에서 발사돼 54시간의 역사적인 우주궤도 탐사의 길에 나섰다.

지난4일 발사예정이었던 콜럼비아호는 비행통제유도에 이용되는 3개의 보조동력유니트중 2개에서 윤활유의 오염이 발견되어 1주일간 연기됐었다.

원래 5일간의 우주비행을 계획했던 콜럼비아호는 연료실의 전기가 누전되는 바람에 54시간으로 일정을 단축했다. 그러나 두우주비행사들에게는 하등 위험이 없으며 만약 더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행시간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NASA당국자가 13일 말했다.

콜럼비아호는 지상 219km의 지구궤도에 돌입하기 위해 거대한 연료탱크 1개와 작은 추진로켓 2개의 추진작동으로 1초당 5마일의 속도를 내며 궤도에 돌입 8분간 150만파운드의 연료를 태운다.

이번 콜럼비아호의 2차 우주여행에 탑승하는 두우주인은 리처드·트룰리 해군대령과 죠·엥글 공군대령이다.

콜럼비아호의 우주 팔(space arm)은 캐나다제이다.

NASA당국은 앞으로 10년간 콜럼비아호가 적어도 40회에 걸친 우주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의 행사▷

(11월16일~22일)

◇11월20일(금)하오7시 사냥클럽 모임
곳 : Choi's Restaurant (Kennedy & Eglinton E)
연락처 : 755-7635(Mr. 백)
757-1097(Mr. 한)

◇11월21일(토)하오6시~12시 한인와이즈맨즈클럽 크리스마스 파티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시청뒤)
연락처 : 531-1166(한인YMCA)

◇11월21일(토)하오6시 대광동창회 크리스마스 파티
곳 : Million-Gold Restaurant (2386 Kingston Rd. Scarborough)
연락처 : 742-5289(Mr. 리)
499-9925(Mr. 서)

◇11월21일(토)상오10시~하오4시 대학교육및 전문직종 안내 오리엔테이션
곳 : 토론토 시교육위원회 6층강당 (155 College St.)

TTC요금 7.2% 인상안

75센트로, 시의회는 대폭인상 주장

TTC요금이 1월중 오른다. TTC는 메트로시의회에 요금인상폭을 7.2%로 잡고 어른요금이 현재 토큰 7개당 $4에서 8개에 $5로 현금지불시 65센트에서 75센트로 올릴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폴·가프리 메트로토론토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간부들은 TTC측이 건의한 7.2%인상대신 10.6%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1월중 인상한다는 시기는 쌍방이 합의를 보았다.

메트로시의회와 온타리오주정부는 77년, TTC 운영비의 68%를 승객들이 요금으로 부담토록 의정서에 규정했다. TTC당 당 예산관리인 스톡웰씨는 11일 "요금인상폭이 7.2%로 될 경우 메트로 시예산에서 지출될 TTC 운영보조예산이 82년도에 460만달러에 달해 메트로시가 부담키 어렵다"고말했다.

TTC는 최근 다운타운의 공공 파킹요금이 비싸고,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심화된 것등의 이유로 점점 이용자수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직업 성차별 심각

성적희롱이 68% 나

작년도 알버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주요불평중 직업전선에서 성차별이 가장 크게 부각됐다고 동위원회 연례보고서가 밝혔다.

성차별불평은 전체에서 48%를 차지했다.

이중 직업상 차별을 주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62%였다.

281건의 불평접수중에서 78건이 취업에 대한 성차별, 93건이 성적희롱(sexual harassment)을 당한 경우이다.

국무성, 인권정책 강화천명

소련 견제위한 핵심정책, 우방도 비판키로

미 국무성은 공석중인 인권담당 차관보직에 엘리옷 에이브람스씨를 임명토록 상원의 인준을 요청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강력한 인권정책을 시행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5일 보도한 국무성의 정책교서(메모런덤)는 미국의 인권정책이 없다는 국내의 비판과 소련의 확장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자유의 가치를 세계에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책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선두에서 밝혔다.

윌리엄 클락 국무차관의 책임하에 작성,헤이그 국무장관의 결재를 받은 이 교서는 백악관의 재가를 받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방국의 인권 위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비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교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이 핵심이며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방어하고 증진하는 정책의 목표이지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 행정부에 인권정책이 없다는 국민과 의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가 외교 정책을 미국의 이념과 관련짓지 않으면 폭넓은 지지를 받을수 없다.

인권은 미국이 소련과 세계 도처에서 경쟁하는데 근본적인 잇슈가 되며 인권에 의해 미·소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타국을 설득할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소련을 저지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좌우된다.

미국은 국제정책에서 자유국가와 자유롭지 못한 국가를 계속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을 못하면 서방과 세계 도처에서 중립화 방향의 움직임을 막을수 없다.

미국은 인권정책수행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두 노선을 동시에 택해야한다.

긍정적으로는 소련과 대조되는 미국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유와 존엄에 대한 침해를 맹렬히 비판하며 국제법과 도덕수준을 강화한다.

부정적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해 외교관계를 재고려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양국간의 경제 안보면의 이해관계라든가 상대국이 당면한 압력과 적대국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방국이든 아니든 공정하게 자유의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은 그것을 지적하고 반대의사를 밝혀야한다. 인권문제가 있는 정부를 더 나쁜정부 또는 공산정권으로 대치하는 것이 인권증진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방의 인권위반시에 국제회의 표결에서 지지하지 않거나 범죄통제 장비를 허가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천명과 함께 이 교서는 엘리옷 에이브람스(33세)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를 인권차관보로 추천했다. 인권담당 차관보직은 77년 카터 행정부때 설치된 것인데 레건 행정부가 금년 1월에 출범한후 공석으로 있었으며 어네스트 르퀴버씨를 추천했었으나 상원에서 인종편견 문제로 인준문제가 발생,행정부는 그의 임명을 6월에 취소했었다.

허영모·김남희 준결진출

몬트리얼 월드컵 아마복싱대회

(몬트리얼-경관성지국장) 제2회 세계월드컵아마복싱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선수단은 라이트플라이급의 허영모선수와 헤비급의 김남희선수가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함으로써 최소한 2개의 동메달을 확보했다.

페더급의 박기철선수는 12일 호주의 보우만선수와의 1회전에서 시종 경기를 리드, 4:1로 판정승, 2회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11일 라이트헤비급의 김유현선수는 콜럼비아 킨다나선수에게 2회 1분 20초만에 RSC로 패했다.

12일 미들급의 이남의선수도 이라의 아라타발에게 3:2로 판정패, 탈락했다.

이번 월드컵복싱대회에서는 지난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의 메달리스트 11명을 비롯 80년 올림픽에 불참했던 한국, 미국등 자유진영의 선수들이 총 출전,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복싱의 최고의 왕자를 가리는 대회인 셈이다.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7개국의 선수들이 금메달 12개를 놓고 대결한다.

한국은 슈퍼헤비급을 제외한 11개 체급에서 각 한명씩의 선수가 출전, 많은 메달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대표선수단을 동행한 한국복싱협회 임언빈회장은 12일 "이남의선수의 탈락은 참 아깝다. 반칙이 많이 계산된 것 같다."면서 나머지 9명의 선수들의 콘디션이 좋으므로 앞으로의 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전적은 다음과 같다.

헤비급 김남희(부전승)-준결승진출
라이트플라이급 허영모(부전승)-준결승진출
헤비급 김유현-RSC패 탈락
페더급 박기철-판정승 2회진출
미들급 이남의 판정패탈락

한국가정 20% 칼라TV보유

작년 8월부터 국내판매 실시

(서울 13일=연합)한국은 다섯가정에 한대꼴로 칼라TV를 보유하고 있다.

13일 상공부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칼라TV 생산은 10월말 현재 190만대에 이르렀다. 그중 104만 2천대가 국내에서 팔리고, 88만6천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국산 칼라TV의 국내판매는 작년 8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작년 12월1일 칼라TV 프로그램 방영이 개시된후 국내 칼라TV 수요는 급상승, 금년 상반기에 월평균 12만대가 팔렸다.

그러나 금년 7월이후 경제불황과 칼라TV를 사는 사람에게 준 특별대부의 중지로 칼라TV 판매는 월 평균 8만대로 줄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이화여고 1981년 성탄 및 망년파티에의 초대

분주다사 하였던 1981년 한해동안도 동창,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모두 평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동창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동창들과 밖앗양반들께 심심한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며, 닥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저, 이화동창 모두가 함께 자리를 같이하는 성탄및 망년파티를 아래와같이 갖고저 하오니, 많은 동창께서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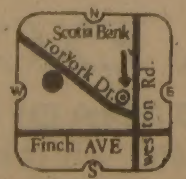
일시 : 12월 4 일 금요일 오후 7 시
장소 : DON VALLEY HOLIDAY INN (GALLERY SUITE) 1250 EGLINTON AVE. EAST
회비 : COUPLE $40— SINGLE $20—
음악 : DISC JOCKEY UNLIMITED
경품 : 여러동창들의 너그러운 호의로 인해많은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음.
※BUFFET DINNER 예산계상, 참석여부를 조속히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자(Mrs. SHIN) 494-4906 송영미(Mrs. IMM) 293-4949
명시사항 : HOTEL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티시일이 지난회보에 알려드렸던 12월 5 일(토)에서 하루전날인 12월4 일(금)로 바뀐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八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율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 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인 아빠를 찾아주세요"

보트 피플에 밀려온 월남소녀…

-아버지는 김영만대위

(시카고지사) 월남전쟁 당시 한국군 아버지와 월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기구한 운명의 틈바구니 속에 홀로 「보트·피플」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 왔던 소녀가 몽매에 그려온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시카고 총영사관에 호소해 왔다.

전쟁의 와중속에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후 어머니조차 잃은 비운의 소녀 김·느구옌양(12세)의 기구한 사연은 지금부터 1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남전쟁의 열기가 한창 치솟고 있던 68년,다안·비엔호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비둘기부대 소속의 김영만 공군대위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실의 월남인 여비서와 결혼을 했다. 김대위와 옌·느구옌 여인은 결혼1년후인 1969년,김·느구옌양을 낳았다.

김·느구옌양이 나던 해, 아버지 김영만 대위는 전임발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부녀간의 생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귀국한 김대위는 부인과 딸을 하루속히 데려오기 위해,수속을 서둘러 70년에 주월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허가서를 보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옌·느구옌여인은 신병으로 입원중이어서 한국행을 일단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월남전의 전황은 날로 악화되어 느구옌 모녀의 한국행은 더욱 어려워졌고, 월남패망의 조짐이 뚜렷해진 75년 초에 김·느구옌양은 이모를 따라 피난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김양의 어머니는 가산을 정리하고 곧 뒤따라 미국으로 피난 올계획이었으나,이것이 모녀간의 생이별이 되고 말았다.

김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피난선을 타고 패망 월남을 빠져나오다가 월맹군의 공격을 받아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월맹군의 추격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 온 다른 친지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김양의 이모는 목을 놓고 울었지만 철부지 김·느구옌양은 영문을 모른채 눈망울만 크게 뜨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김양은 이모의 보호를 받으며 어엿한 소녀로 성장하여 센트 루이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제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맺혔던 전쟁의 악몽은 말끔히 가셨다.

그러나 철이 들어 갈수록 엄마·아빠 생각에 어린 소녀의 마음엔 새로운 응어리가 생겨 나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이 엄마·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그늘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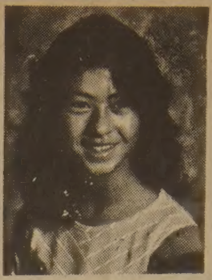
전쟁의 와중 속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채 자라나다가 어머니마저 잃고 만 비운의 소녀 김·느구옌양-.

부모없이 어엿한 소녀로 성장한 김양을 볼 때마다 이모의 마음은 한없이 대견스럽고,또 한편으로는 가련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철이 든 김양이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버지는 한국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이모로부터 들은 이후로, 아버지를 그리는 것은 당연한 일-.

틈만 나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라고 김양이 졸라대는 통에 이모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협조를 요청하게 된것.

지난 9월30일자로 이러한 서신 요청을 받은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외무부를 통해 국방부 신원조회했다.



▲어엿한 소녀로 성장한 현재의 김양모습.

▲한복을 입을 김·느구옌양의 깜찍한 모습(3살때)

▲1968년 당시의 김양부모.

월경때 긴장 살인유발

영국법원 피고석방

"월경직전의 긴장상태"가 애인을 죽이게 된 동기라고 말한 영국의 한 이혼녀가 똑같은 이유로 경찰관을 칼로 위협한 여인이 석방된 하루후 풀려났다.

두 아이를 가진 37살의 이혼녀 크리스틴·잉글리쉬는 애인 배리·컷슨(31)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당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월경전 긴장과 초조의 결과로 책임성이 결여된 살인으로 판명돼 10일 조건부 석방 판결을 받았다.

전문의 카타리나·달튼 박사는 증언에서 잉글리쉬는 66년 이래 월경후 29일째 되는 날 특별히 심한 형태의 긴장과 초조증을 보였다고 말했다.

잉글리쉬는 3년간의 관계를 청산할 만큼 크게 컷슨과 다툰 후 자동차로 그를 치어 죽였다.

달튼 박사는 월경전 긴장상태로 고생하는 여성의 경우 음식섭취 부족은 아드레날린의 핏속 흡수를 촉진, 신경과민과 긴장을 유발시켜 공격적이고 참을성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증언했다.

비정의 모자

늙은부친 살해혐의

토론토 경찰 강력살인전담반은 11일 아침 헬렌·솨피로(45)와 아들 로렌스(16)를 솨피로 여인의 72살난 아버지 루이스·스타리코브살해혐의로 구속했다.

스타리코브씨는 10일 온몸이 피에 흥건히 젖은채 노스욕 핀치·웨스트·몰 건물뒤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됐다.

10일밤 검시결과 그는 심한 구타로 죽었다고 판명됐다.

스타리코브씨의 시체는 손과 발이 꽁꽁 묶인채 천과 플래스틱 덮개로 감겨져 있었다.

시체는 10일 상오 10시 30분쯤 몰안의 캐네디언타이어뒤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다.

경찰은 시체가 버려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다. 캐네디언타이어에서 일하는 자동차수리공은 트럭 하나가 쓰레기통에 다가와 시체로 보이는 물건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럭이 떠나기전 트럭의 플레이트 넘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트럭운전사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주시하기 시작하자, 물건(시체)을 쓰레기통옆에 놓고 급히 떠나갔다고 목격자는 말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지난주 제인×핀치 아파트에서 일어난 총격사건과 연관지어 수사를 진행했었다. 제인×핀치 총격사건으로 1명이 죽었다.

검찰은 솨피로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제2급 살인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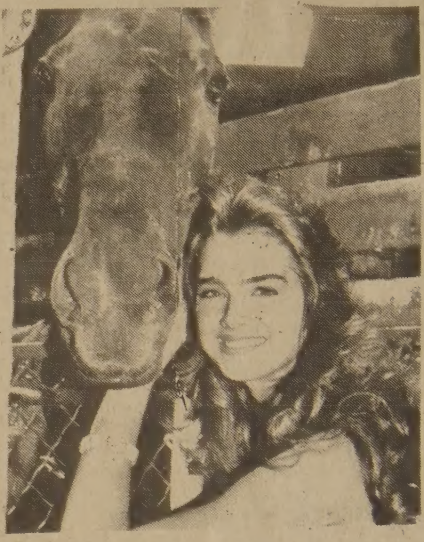
무역인협회 임금정책공박

(서울 12일 연합=)한국무역인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내년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10%선으로 억제하자는 몇몇 지역경제단체들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인협회의 이번 성명은 10일 대한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고용주협회가 회합후공개한 발표를 공박하기 위한 저의가 있다. 이들의 발표골자는 국내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임금인상을 최고 10%선으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동성명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임금인상안은 금년말 20%까지 상회될 소비자가격 인상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러한 임금정책은 금년 34%의 소비자가격 인상과 대조, 17%의 임금인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명서는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이 임금인상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임금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영화 프리티·베이비에서10대의 창녀역을 맡아 명성을 굳힌 10대의 스타 브룩·쉴즈(16세)양이 10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린필드 판사는 쉴즈양이 어머니 테리어사와 함께 제소한 그녀가 10세때찍은 나체사진의 상업적 사용금지소송을 기각시켰다.
테리어사는 쉴즈양이 겨우 10살밖에 안됐을때 직업사진사를 시켜 나체사진을 촬영, 당시 모 성인용 잡지에 게재사용 되는것을 막으려 했던것.
그린필드 판사는 테리어사가 보호역을 한다는 미명하에 나이어린 딸을착취, 치부했다고 비난했다.
사진은 쉴즈양이 지난 3월 뉴욕에서 있은 미국 애마쇼에 참석, 말과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인터뷰

국군부대와 자매결연 — 이병권 대한체육회장

◇이병권 체육회장

지난 광복절 체육대회를 치르고, 캐나다 선수단을 인솔, 모국체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병권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장과 자리를 같이했다.

○(문) 모국방문, 특히 체전 참가소감은?

●(답) 성과가 좋았다. 교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 본다.

○(문) 특히 꼽을 성과는?

●(답) 일선지구 동두천의 제 26사단(사단장: 장기호 소장)과 우리 캐나다지부가 자매결연을 맺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장병들도 매우 기뻐했다.

○(문) 모국체전에 관해 특기할 일은?

●(답) 대한체육회 주사무총장은 "내년부터는 해외동포팀에 더욱 협조하기로 했다"고말했다. 비행기표, 호텔비 보조등…내년부터는 우리도 참가에서 의의를 찾는 것을 벗어나 경기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문) 앞으로의 계획은?

●(답) 내년에도 8.15체전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체육회 결산문제는 8월31일까지의 결과가 나와 있다. (본기자에 전달) 그날 현재6,560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앞으로 결산보고를 신문에 내겠다. 〔송〕

교민동정

◆김석환(킴스화랑)=1286 웨스톤·로드(에글린턴×웨스톤)에 화랑을 개업했다. (Kim's Art Gallery Tel: 243-0233)
취급품은 액자, 동양화, 유화, 초상화등.

◆안병원(한인Y 합창단 지휘자) = 3년여 교리준비끝에 지난 8일 고종욱 신부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식입교했다.
세례명은 그레고리오.
한국시절 「통일의 노래」「구슬비」등 다수의 작곡으로 유명하며, 작곡집도 낸 안씨는 7년전 캐나다로 이민온 후, 「한맘천주교가」, 「이민의 노래」(둘다 이석현 작사)등 수곡을 작곡했다.

◆김장환(Rose. E 무역회사 중역) 회사파견으로 금년도 제2차 동남아 방문중 중공, 홍콩, 한국순방후 2주간(10월중순~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특히 중공여행중 북경, 상해를 방문했는데, 북경은 만리장성의 관광객으로 연일 붐비고, 거대한 자전거 파킹장(택시잡기는 힘들고)이 인상적이었다고. 시설은 좋지 않았고, 밤에는 캄캄한 거리로 변해 불빛을 보기 힘들었다.
중공의 국민소득은 월30달러 정도로 무척 낮은 것에 놀랐다. 상해는 북경과는 완연히 다른 무역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중공 각도시마다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한다. 김씨는 교포사회에서 그동안 인벤터리업으로 봉사해 왔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캐나다 외환은행

영업안내

교민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캐나다 외환은행 개점1개월 영업 실적이 자단 1천만 달러를 돌파하였읍니다. 그동안 적금, 송금, 수출입, 대출등 저희은행을 이용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외환은행장 최승낙

1981년10월31일

업무내용

1. 체킹구좌업무(개인및회사)
2. 예금업무(SAVING및TERM)
3. 적금(6개월, 1년, 1년반, 2년)
4. 송금업무(전신및 우편송금)
5. 수출입업무(신용장 개설통지 및 내고)
6. 대출업무(개인및회사)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ONT. M5X 1E3
전화 : 364—2890

캐나다외환은행

고교수석졸업 주군에
3개대학 장학금 제의
—"백인보다 뛰어나야…"에 분발

주한종 군

지난 6일 키플링고등학교 졸업식장은 한국인의 긍지와 우수함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교포 2세 주한종(Paul Choo)군은 13학년 평균성적 95.3으로 영예의 수석졸업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두뇌를 과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주군말고도 또다른 교포 2세가 3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주군은 한인대학생회 주최 수학경시대회에서 79년 주니어 1등, 80년 시니어 1등을 차지한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학생이다.

주군은 대학지원 당시 맥매스터대학교와 웨스턴 온타리오대학교로부터 6천달러 장학금 제의를 받았으나 수락치 않고, 토론토대학교의 7백달러 장학금을 받고, 현재 동대학의 트리니티 칼레지에서 아트 앤 싸이언스(Art & Science)를 전공하고있다.

주수식씨(서울법대졸)의 4남매중 장남인 주군은 75년 중학 2년때 이민 왔다.

주군은 고등학교 재학시 실력을 인정받아 교장의 추천으로 동급생들의 개인지도와 여름학교에서는 수학선생 노릇도 하는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군은 수석의 비결과 동기에 대해 같은반의 한국인 여학생이 국민학교에서 부터 12학년까지 줄곧 1등을 한데 자극을 받고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야 되나 하는 야심과 평소 부친의 교훈중 동양인이 백인과 실력이 동등하거나 처지면 똑같은 대우를 못받는다는 말에 자극되어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한다.

주군은 특수의학을 공부하여 조국에 가서 공헌할 생각이라고 유창한 한국말로 또렷이 말했다.

컴퓨터교육 강좌
한인컴퓨터회 주최

컴퓨터 활용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호응, 한인컴퓨터회(회장 한혜식)는 오는 28일(토) 하오 2시 30분부터 4시간 온타리오 교육회관 2층(252 블루어, 웨스트)에서 컴퓨터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주제는 (1)온타리오 각대학의 컴퓨터교육(2)컴퓨터 산업현황과 취업전망, (3)컴퓨터 사용 시범실습이다. 고교생및 일반교민의 청강을 환영하고 있다.

(연락처 : 245—6995(김) 275—5683(한))

대한부인회 태동
연말경 정식발족

「대한부인회」는 오는 연말을 전후하여 정식 발족, 창립총회를 갖기로 내정하고 오는 24일 아래 준비위원모임에서 날자를 확정한다.

준비위원 : 이상원, 양혜신, 김상환, 김옥자, 김해숙, 이옹옥, 오정수, 김옥이, 조정자, 김상연, 정승원.

<단 편>

모래성 ③

박성민 (문협회원)

소집장을 받으면서 그녀는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을 보았다. 순간 그녀는 놀란 눈으로 기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영도 무슨 말인가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의 속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어떻게 연락해서라도 이번엔 꼭 참가 하도록 하세요."

이번엔 협박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 또한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움직였으나 할말을 잊어버린채 낡은 판자문 사이에 그렇게 서있었다.

기영은 모자를 눌러쓰곤 걸음을 옮겼다. 등뒤로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그는 뒤돌아봄이 없이 서둘러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기영이 중대본부로 돌아왔을 땐 모두들 퇴근하고 대대연락병인 채이병이 혼자 남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들어서는 기영을 반겼다.

"야! 유이병, 오늘 한턱 내야겠다. 자네 오늘 소집해제장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한장의 종이 조각을 귀중한 물건이라도 전해주듯이 기영에게 건네주었다. 기영은 뭉당기뻐서 소리쳐야 할 터인데도 아무 표정 없이 채이병이 건네준 소집해제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꾸겨넣었다.

"유이병, 알고 보았더니 빽이썬데…"

무슨 빽으로 해제 받느냐고 채이병은 귀찮게 물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그답지 않게 필요이상으로 비굴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오늘 색시집에 가서 한턱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기영이 가방을 들고 중대본부를 나올 때도 그는 쫓아오면서 자기도 이대독자인데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어왔다. 기영은 갑자기 속이 메시꺼움을 느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따라오는 채이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야! 너 이새끼야,우리 손자가 국방부 인사과에 있는 거 몰랐냐?"

녀석은 당황하여 그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런 그를 뒤로 두고 기영은 걸음을 빨리했다.

기영은 낮에 그가 술을 마시던 대포집으로 갔다. 한 테이블에는 벌써 일을 끝마쳤는지 노무자차림의 사내들 서넛이 앉아서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기영은 구석자리로 가 앉았다.

술을 마실수록 낡은 판자문 사이에 서있던 현정의 모습과 아울러 커다란 철대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가을날 갑자기 일기를 적고 싶었을 때 일기장 맨 첫페이지에 적었던 이름이기도 하였다.

비자를 받던 날, 기영은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그가 뛰어놀던 큰집앞의 공터는 더 이상 흙이 보이지 않았고, 하얀 콘크리이트 조각으로 말끔히 포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렸을 적 그렇게 높아 보이던 깍쟁이네집 담은 사실 그가 생각했던 만큼 높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먼 나라의 공주님이 사는 성벽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보호벽일 따름이었다.

기영은 그 육중한 철대문 앞에도 서보았다. 문패에는 그 흔한 성중의 하나인 이아무개라고 적혀 있었다. 오후 늦게 찾아간 기영은 그집앞 공터에서 지붕과 지붕사이로 해가 숨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기영은 그러고도 쉽게 그집앞을 떠나지 못하였다. 초여름밤의 열기를 살며시 피부에 전해주는 가느다란 바람이 골목과 골목을 돌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실려 조그만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몇번이고 뒤를 돌아다보았지만 해넘어간 골목에는 빛깔과 무게를 더해가는 어둠만이 쌓이고 있었다.

"얘, 이집은 벌써 부서졌다."

그것은 바람소리였다.

어느틈에 왔는지, 또 한무리의 사람들이 기영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먼저 와있던 노무자차림의 사내들은 술이 취했는지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또 하루의 땀에 젖은 소리는 노래라기보다는 차라리 악이었다. 그들의 악을 쓰는 소리는 조그만 때묻은 술집의 벽에 부딪치고 또 부딪치어 결국엔 바닥에 떨어져 구르다간 사라졌다.

국민학교를 다닐 적의 일이 생각났다. 3학년때의 일이었으리라, 정말 꿈같게도 기영은 현정과 짝이 되어 나란히 앉게 되었다. 기영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애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따라 했다. 그애의 가방을 들어주는 일 따위는 기영이 도맡아 하였다.

그애는 별로 말이 없는 편이었으므로 한반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짝인 기영에게만 가끔 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기영의 머리를 쥐어박았던 뚱뚱한 아줌마가 차를 타고 학교로 그애와 담임선생의 점심을 가져오곤 하였다. 그애의 하얀 쌀밥엔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곤 하였다. 그애는 즉석으로 구운 것같은 불고기나 계란부침, 김따위를 기영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㉒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아주트는 그자신이 알고있는 이땅의 모든 신들을 그의 두아들에 알려주었고 또 옛말로된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하늘의 바람과 위대한 신 카일 라를 부르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파이자 아포파 그리고 다른 해로운 신들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었고, 어떻게 이들을 잘 다룰수 있는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해 봄이 오기전 아주트는 가이미 이두아들에게 더이상 가르쳐 줄 수있는 것이 없게됐다.

이제 그들자신에게 맡겨서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만 남아있었다.

샤만이 되고싶어하는 젊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고행을 하면서 선량한 신인「토른락」을 만나 수련자가 이 神과 대화를 해야한다. 그러면 이「토른락」은 새로운 샤만을 인도하는 신이되며, 장래 이 샤만이 도움을 청하게 될때 그에게 가장 힘을 주어 무술을 행하게 한다.

큰 아들인 카쿠트가 먼저 캠프를 떠나 멀리 고행길이 나섰다. 그는 약 2주일간의 고행중 일체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때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었는데 지독한 바람속에서도 카쿠트는 자기 아버지의 캠프로 용케 살아서 돌아와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캠프를 떠난지 닷새후 그는 시야를 가리는 폭풍때문에 더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 눈위로 솟아나온 바위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카쿠트는 일주일 이상 바위옆에 머물러 움직이지도, 먹지도 않았다. 약 9일째 되는날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발꿈치께에서 눈에서 솟아나온 커다란 꾸부러진 지팡이 한개를 보았다. 그는 그 지팡이가 이상한 말로 자기에게 얘기하는것을 공포에 질려 듣게 됐다. 지팡이는 긴 매듭처럼 꼬인 팔과 거미 다리같이 많은 다리를 밑에 달고 있었다. 카쿠트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눈써는 칼을 뽑아들고 이 괴상한것에 덤벼들었다. 그는 칼이 저절로 손을 벗어나 그 지팡이 같은 물건과 싱갱이를 벌리는 것을 보았고, 그 물건은 결국 그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일어나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너 카이토락, 숲의 귀신아! 이제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대로 할꺼어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남쪽 멀리있는 숲으로 돌아가지 못할것이니라!"

카쿠트는 이 귀신붙은 나무가지를 꺾어 그의 부적주머니에 꼬매여 넣고 캠프로 돌아왔다. 이것이 카쿠트가 자신의 「토른락」을 발견한 내력이다.

다음 차례인 가꾸미가 다음 자신의 토른락을 발견하게 된 내력을 이러하다.

"아침해가 밝기전에 일찍 캠프를 떠났지요. 그리고 북쪽으로 정처없이 걸어갔읍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배고픔도 전혀 느끼지를 못했읍니다. 열마를 혼자걷노라니 꽁꽁얼어 붙은 호수가 나타났읍니다.

그 호수 가운데에 눈으로 반집을 만들어 무조건 앉아 있었지요. 몇일동안 바람만 불더니 어느날밤 얼음속에서부터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그 소리가 언젠가 호수에서 살고있다고 들은 거대한 고기들의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판단, 육지로 도망갈려고 했읍니다마는 다리가 굳어버려 말을 듣지않더군요. 그래서 노는 얼음위에 자빠져 죽은사람처럼 누워버렸읍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창립5주년
기념예배및 집사안수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포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교회는 창립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와 아울러 집사안수식을 하오니 오셔서 축복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안수집사 : 김복득
일 자 : 1981년11월22일(주일) 오후4시
교회전화 : 247—9577
목 사 관 : 881—7162
주 소 : 1KING ST. WESTON ONT. (KING & WESTON)

순복음 토론토교회 담임목사
이필주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1년12월12일(토)오후12 : 30
장소 : PLAYTIME BOWL LTD(33 SAMOR RD
종목 : 부부전(혼합식) 참가비 $7—
단체전(3인1조) 참가비 $20—
개인전(남, 녀) 참가비 $7—
시상 : 개인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
남 1, 2, 3, 4, 5등, 여 1, 2, 3등
핸디캡—남, 녀 1, 2, 3 등
부부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1, 2, 3등
단체전—우승,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 녀 1명
부상 : 개인전 챔피언—제니스 흑백TV
(아카데미TV사 김정운 제공)
여자 1등—무료파—마권(헬렌미용실 이승자 제공)
부부전 챔피언—범랑 김치통셋
(미도파백화점 장추신제공)
핸디캡 남1등—국보쌀(한국식품 서부서춘원)
핸디캡 녀1등—장미쌀(한국식품서부)
※본시상은 12월19일 송년잔치 장소에서 있겠읍니다.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크리스마스및 송년잔치

한인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1981년12월19일(토)저녁7시30분~새벽1시
장소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회비 : 커플 $30— 싱글 $20—(식사, 주류, 드링크 포함)
회원권판매 : PLAYTIME볼링장에서 매주 일요일 하오6~9시, 한국식품서부

파티 프로그램
● 시상식(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 행운경품 추첨
벽시계(영리무역 이영헌 제공)
카 스테레오(HI—FI HOUSE 박명호)
액자(H&S PICTUR FRAME조성호제공)
라면 1상자(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샘표간장(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 노래와 경음악(4인조밴드 출연)
● 댄스파티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주최·재카나다 한인볼링협회 / 후원: 한국일보사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歌謠따라 歲月따라 (2)

特輯

한국 歌謠 百年史

尹心悳의「死의讚美」서 趙容弼의「미워…」까지

李美子와 비슷한 시기에 가요계에 데뷔한 崔喜準 역시 남성가수로는 60년대를 대표할만한 가수였다。崔喜準은 62년 문화방송에서 새연속극「진고개신사」를 방송할때 그 주제가를 부르면서 가요계에 데뷔했다。

<미련없이 내뿜는 담배연가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별마다 새겨보는 별마다 새겨보는 아아 진고개 신사—>

목소리가 비교적 단순한데다 요란하게 기교를 부리지도 않는 崔喜準의 노래는 특히 지성인층을 파고 들면서 인기의 폭을 넓혀갔다。

이어 발표한「하숙생」은 崔喜準을 톱가수로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대히트곡이었다。

서울法大를 중퇴한 崔喜準이 이처럼 인기가도를 달리자 덩달아 위키 리、朴炯俊、혼혈가수 유주용 등도 인기대열을 달렸다。

이와 함께 59년도에 데뷔했던 샹송가수 崔良淑이 발표한「황혼의 엘레지」도 널리 보급됐다。

<마로니에 나뭇잎에 잔별이 지면、정열에 불이 타던 첫사랑의 시절、영원한 사랑 맹세하던 밤、아아아아 흘러간 황혼의 엘레지—>

이 곡은 듣는 사람에게마다 첫사랑의 추억을 되살리게 하면서 오래오래 애창됐다。

韓明淑、權惠卿과 함께 인기를 모았던 여가수는「밤안개」를 히트시킨 玄美와 李錦姬、李椿姬 등등。

그런데 이들의 인기가 한창이던 64년、가요계에는 일찌기 찾아보기 힘들었던 저음의 가수가 등장했다。바로 17세로 가요계에 노크한 文珠蘭이었다。

이때부터 가요계에는 허스키 보이스란 말이 유행됐고 그 붐을 일으키며 文珠蘭은「동숙의 노래」등 많은 노래를 히트시켰다。

이 무렵에 데뷔한 金相姬의 인기도 대단했다。

60年代「下宿生」「대머리총각」

高大法大 출신의 金相姬는「대머리총각」「코스모스 피는 길」등 건전하면서도 정감어린 노래들을 속속 발표、인기가도를 달렸다。

◇70년 전후에 걸쳐 라이벌로 양대산맥을 이루던 南珍, 羅勳兒의 레코드 재킷。

이때를 전후해서 남자가수도 여럿 등장했다。그중에도 삽시간에 가장 많은 팬을 확보했던 가수가 裵湖였다。

비록 짧은 기간에 걸쳐 인기를 누리다가 요절한 裵湖였지만 그는 한국가요사상 비련의 아픔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잘 표현한 가수란 평을 듣고 있다。

裵湖의 노래중에서도「누가 울어」는 사랑의 고통을 가장 떼저리게 노래한 작품이었다。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같은 이슬비、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피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울어、검은 눈을 적시나>

田友자사·나규호작곡의 이 노래는 한동안 숱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裵湖의 인기는 치솟을대로 치솟았다。그는 그후에도「돌아가는 삼각지」、「안개낀 장충단공원」등 많은 곡을 히트시켰으나 지병으로 젊은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裵湖처럼 비운의 주인공이 된 車重樂도「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많은 인기를 잡았지만 역시 낙엽처럼 젊은 인생을 마치고 요절하고 말았다。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車重樂。

◇金세레나의 등장

65년을 전후한 가요계에는 많은 실력파가수들이 등장했다。

65년7월 DBS 가요콩쿠르 프로를 통해 데뷔한 吉美美를 비롯、金세레나、金富子、張美花 등과 어렸을때부터 무대활동을 하던 尹福姬 등이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특징을 살려 金세레나、吉美美、金富子는 민요조와 가요를 계속 히트시키면서 맹활약、밤무대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羅勳兒·南珍 퇴조하면서 趙容弼 脚光받아

60년대 후반에 등장、70년대 중반까지 남자 가수로 양대 산맥을 이루던 羅勳兒—南珍은 이들보다 2~3년씩 늦게 데뷔했다。

◇록가수 趙容弼。

南珍은 67년4월에、羅勳兒는 68년7월에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羅勳兒—南珍은 여러모로 흡사한 점이 많았다。음악적실력이 두드러졌던 이들은 다양한 레퍼터리를 다양하게 구사할수 있었지만 주무기를 트로트로 내세워 가요계에 다시 트로트 붐을 일으켰다。

이들은 인기가 한창 고조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스캔들 경쟁에서도 각축전을 벌이더니 결국은 羅勳兒는 金芝美와、南珍은 尹福姬와 결합하면서 가요활동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그후 南珍은 尹福姬와 헤어져 미국으로 건너갔고 羅勳兒는 최근 본격활동을 다짐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어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다。

60년대 중반기의 가수로는 패티 金의 저력도 무시할수가 없다。그런데 가수 패티 金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던 吉屋潤씨와 손잡고「사랑하는 마리아」를 발표하던 69년부터였다。

두 콤비의 활약은 각종 국제대회에까지 뻗쳐 다수의 입상경력을 쌓았고 국내에서는「서울의 찬가」등 건전가요를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부로 맺어졌던 두 사람이 결별하면서 패티 金의 전성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60년대말에 스타트해 70년대 중반까지 활약한 가수중 두드러진 가수 그룹은 鄭薰姬、金秋子、펄시스터즈、李洙美、金夏庭 등의 여가수와 宋大寬、朴一男、趙英男、宋昌植、尹亨柱、崔憲、金勳、金世煥、曹慶洙、崔炳傑의 남자가수들。

이들중엔 대마초 파동으로 4년간씩 활동이 묶였다가 풀린 가수도 있지만 대부분 최근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혜은이、李銀河、尹시내의 등장도 가요계로서는 괄목할만한 사항—。

또 羅勳兒—南珍이 퇴조하면서「돌아와요 釜山항에」의 빅히트로 가요계 일선에 진출한 趙容弼의 존재는 70년대 가요계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다。

「돌아와요…」이후「창밖의 여자」「촛불」「단발머리」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킨 趙容弼이 요즘 히트하고있는「미워 미워 미워」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은 다른 가요인의 추종을 허락치 않을정도로 대단한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우수한 가요인이 등장한것은 축하해야할 일이지만 이에 대처할만한 가요인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요 종사자는 물론 관계 당국이나 매스컴들은 우수 가요인 발굴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 같다。

<白承悅기자>

◇전형적인 트로트가수로 가요계를 주름잡던 南珍, 文珠蘭, 李美子, 河春花。

◇60년대에 출범한 민요가수들。좌로부터 김세레나, 김내화, 박가연, 김부자。

◇4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주역급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왼쪽 두번째부터 高雲峰, 玄仁, 金세레나, 都美。

해외 걸작 만화

◇이젠 변명이 필요없겠지?

◇남편이 그리스선박 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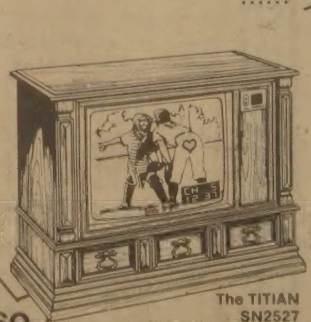
◇취침중! 접근 금지

◇애들은 싸워야 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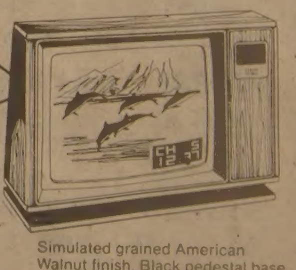
◇접시의 주인공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 기간 : :10월18일~12월17일까지 ……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30 INSTANT REBAT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FINCH AVE W. WESTON RD HWY401 HWY400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SCARBOROUGH, ONTARIO M1E 3P6
Kingston Rd. Morningside Ave. Lawrence Ave. E.

직경38㎜、무게는 白銅貨28g 銀貨31g정도
純銀貨는 국내市販價 5만원이나 되고

올림픽 기념 코인은 비단 수집가들의 군침을 삼키게하는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들 발행하는 주최국의 입장에서는 대회경비의 일부를 보탈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아뭏든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오는 85년~86년쯤이면 이의 발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올림픽기념주화는 당해 연도에 모두 발행치 않는것이 상례。따라서 대개의 경우 2년에 나누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역시 그럴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것은 그같은 낙관속에서도 아직은 코인 수집가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표수집가의 경우 50만명을 훨씬 넘고있는데 반해 이 분야의 수집가는 고작 1만명을 하회하는 숫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념코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다。

코인이야말로 영원히 남는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대거 수거해 갈때 그것이 곧 국위와도 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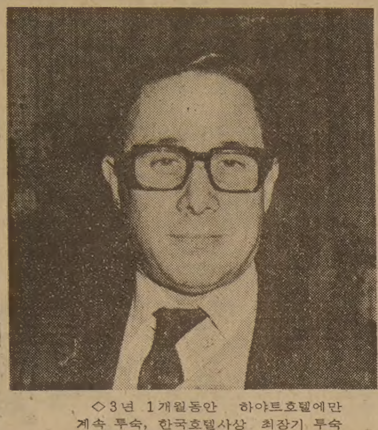
이렇게되면 코인은 곧 금속예술품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다시 말해 도안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높은 수준의 것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李漢玉씨는 『외국의 예를 많이 확보해서 비교도 하고, 또 자체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方>

異色話題 호텔숙박비만 3년1개월 동안 6천만원
서울 하야트호텔에 투숙한 美國 전기기사 브루노·마틀렛씨

하루 숙박료 4~5만원에 식사비등 다른 비용이 2만원이 넘는 초고급호텔에 3년이 넘도록 장기 투숙중인 손님이 있어 호텔街의 화제가 되고있다。화제의 주인공은 하야트호텔 투숙객 부루노·마틀렛씨(55·벨기에人, 미국전기회사 엔지니어)。마틀렛씨가 그동안 호텔에 지불한 비용은 숙박료만도 4천여만원, 다른 비용을 합치면 모두 6천만원이 넘는다。호텔측은 지난달 31일밤, 마틀렛씨를 비롯한 장기투숙자 1백여명에게 사은의 만찬을 베풀었다。

長期투숙객 百명에 謝恩파티
美國人 가장많고 80%이상은 비즈니스맨 보답


◇3년 1개월동안 하야트호텔에만 계속 투숙, 한국호텔사상 최장기 투숙 기록을 세운 브루노·마틀렛씨。

◇받기前에 베풀어라

지난달 31일밤 7시, 하야트호텔 지하2층 실내수영장에 마련된 뷔페식 만찬회장은 마치 구라파나 미국의 어느 연회장을 방불케 했다。서구식 시설을 갖춘 장내에 은은히 울려퍼지는 지터(오스트레일리아의 현악기)의 연주소리도 그런 무드를 풍겼을 뿐 아니라 이날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 서양손님들이었기 때문이다。

초청을 받은 투숙객은 1개월 이상 장기투숙중인 남녀손님 1백16명, 그중 1백3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손님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자유중국, 홍콩의 순이었다。직업별로는 80%이상이 비즈니스맨들—。

한편 이들의 투숙기간을 보면 마틀렛씨가 3년1개월로 최장기 기록을 세웠고, 다음이 피터·고살트씨(55·독일인·시멘트회사 엔지니어)였다。

이밖에 지난 3년반동안, 매달 절반씩을 서울 하야트호텔과 독일을 오가며 묵어온 베이어씨(전자산업체임원)도 색다른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야트호텔의 홍보 담당 매니저 李敎順씨는 하야트호텔에선 1년에 8회씩, 장기투숙자에 대한 사은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고 한다。

금년에도 지난 5월, 남이섬에서 야유회를 가졌고 8월에는 옥외수영장에서 칵테일파티를 가진데 이어 이날의 파티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호텔측이 이처럼 정기적으로 사은행사를 갖는 이유는 「받기 전에 베풀라」는 서비스 정신에도 근거를 두지만 한번 인연을 맺었던 손님을 계속 단골로 유치하겠다는 뜻이 있다。

그중에도 투숙객들이 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國籍이 제각기 다른 손님들끼리 親交를 맺게 한것은 또다른 의미의 큰 효과였다。

따라서 이날 파티모임에서도 손님들은 상당히 친숙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중에는 평소 조깅과 테니스, 수영등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그룹회원이 적지않다고 파티관계자는 전했다。

◇最長투숙 기록세워

파티에서 화제를 모은 사람은 역시 최장기 투숙기록을 세운 브루노·마틀렛씨였다。

마틀렛씨에 의하면 그가 이 호텔에 처음 투숙한것은 하야트 호텔이 문을 연지 다섯달만인 78년9월초였다고 한다。

그가 많은 호텔중에서 하야트호텔을 택한것은 『위치와 경관이 좋은데다 종업원의 서비스가 수준급이고 투숙객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때문』이라는것。

55살 나이에 아직도 독신을 고수하고 있다는 마틀렛씨는 『특히 이 호텔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독신생활에 편리하다』면서 『그동안 세계 각국을 돌면서 웬만한 호텔은 거의 다 투숙해 봤지만 서울 하야트의 수준은 1급에 속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82년까지 머물면 호텔비는 1億원 넘을듯
"景觀좋고 가족적분위기에 서비스 흡족해"

◇1개월이상 장기투숙객 1백여명을 위해 하야트호텔이 벌인 사은파티장。시설이나 분위기가 모두 西歐風이었다。

마틀렛씨는 현재 숙박료등 호텔비용에서 25% 디스카운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지불한 비용이 통틀어 6천여만원。이 돈은 모두 마틀렛씨의 회사에서 부담해 왔다。

마틀렛씨는 『오는 82년말까지 한국에 주재하는 동안 계속 이 호텔에 묵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비용은 1억원에 가까운것으로 추산돼 그렇게될 경우, 그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다。

장기투숙 랭킹 2위인 고살트씨는 지난해 9월초 투숙, 1년1개월이 지나도록 이 호텔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장기투숙 이유를 『주위경관이나 시설도 좋지만 특히 불고기, 비빔밥등 음식이 입에 맞아 건강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살트씨는 『한국 체류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기분 같아서는 올림픽이 열리는 88년까지 계속 머물고 싶다』고 웃었다。

마틀렛, 고살트 두사람에 비해 계속적인 투숙기간 경쟁에서는 뒤지지만 하야트호텔과는 가장 먼저 인연을 맺은 베이어씨는 지금까지 이 호텔에서 1년9개월을 묵어왔다。

그가 한국에 올때마다 하야트 호텔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는 하야트란 이름을 가진 같은 체인의 호텔이 미국의 57개소를 포함, 모두 1백9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체인의 이 호텔들은 시설이나 서비스 제도가 국제적 수준이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야트호텔에 맛들인 사람은 같은 체인의 호텔을 찾게 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미 20년전부터 하야트호텔 단골이된 베이어씨가 서울하야트호텔 단골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갖가지 이유로 단골이 된 손님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호텔측에서는 지난해초부터 18층에 별도로 리즌스 클럽을 마련, 특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39개의 룸을 갖춘 이 클럽의 숙박료는 다른 룸보다 5달러씩 비싸지만 관광, 항공권 예약, 메시지 전달등 모든 서비스를 지배인이 맡아 처리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골 고객이 이 클럽의 고정회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색다른 서비스를 통한 덕분인지 하야트호텔의 객실 투숙률은 85~90%, 10월에는 98·7%를 유지해 왔다고 호텔측은 전하고 있다。

<白承悅기자>

女性에 人氣 높은 英皇太子 결혼 기념鑄貨

◇인기 높은 英 찰즈황태자 결혼 기념鑄貨。

世紀의 結婚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찰즈 황태자의 결혼 기념주화가 인기속에 국내에 시판되고 있다。기념주화 전문업체인 禾東洋行을 비롯, 大寶堂·東洋화폐사·三寶堂·海東화폐사·金貨社등 10여개소의 화폐 취급점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결혼 기념주화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직수입된 2만여개로 개당 2천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英國서 2만여개 直輸入…個當 2천원 呼價

7월29일의 황태자 결혼식에 때맞춰서 영국왕립조폐청은 이를 기념하는 주화 1천만여개를 주조했었다。

白銅貨와 銀貨로 나누어 발행된 이들 주화는 다같이 국제통용 25펜스짜리로 직경이 38㎜, 무게는 白銅貨의 경우가 28g, 銀貨는 이보다 약간 무거운 약31g 정도。

앞면에는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 황태자비의 얼굴이, 뒷면에는 엘리자베드 여왕의 초상이 각각 새겨진 주화는 수입 1개월여만에 벌써 3분의 1가량이 팔린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기념주화 전문취급점이 단일 품목으로선 처음 겪는 호황이란 점에서 흥미를 끈다。그러나 주화의 대부분은 白銅貨로 銀貨는 불과 몇개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액면가 25펜스면 한화로 따져 3백50~3백60원。여기에 포장비를 합쳐봤자 천원이면 되고 이를 다시 도매상에게 천4백원에, 그리고 소매로 2천원을 받고있는 것이다。그런데 銀貨만은 그렇지가 않다。액면가는 물론 25펜스로 白銅貨와 같지만 재료가 純銀이어서 그것 자체의 값을 따져도 60달러, 한화로 약4만3천원이나 된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시판가 5만원에 호가되고 있는 것이다。값이 비싸기로는 英聯邦 12개국이 발행한것도 마찬가지。버뮤다, 세인트헬레나, 모리시어스등 작은 연방국들이 다투어 기념주화를 만들었으나 고작 5~6만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도안 역시 각기 다르다。

결국 업자들이 눈을 돌린게 값이 가장 싼 영국왕립조폐청이 만든 기념주화였던 것。

25펜스짜리로 白銅貨와 銀貨로 나눠…
앞面엔 皇太子와 皇太子妃, 뒷面엔 엘리자베드女王 肖像

『이 품종만을 따진다면 재미를 좀 본 셈이지요。같은 품종으로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또 짧은 기간에 나갔으니까요。』

기념주화 전문인 李漢玉씨 (禾東洋行부장)의 말이다。

그 이유를 그는 『제5공화국 정부기념주화발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고, 여기에 결혼식이 세계적 관심을 모은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값이 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李씨에 따르면 이번 기념주화의 고객은 역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그중에서도 고교생과 대학생에 이르는 젊은 층들이 압도적이어서 이들이 세기의 결혼식에 쏠린 관심의 도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개월여의 반짝경기도 이제 다소 수그러지고 있는 느낌이다。李씨는 『결혼식까지 이미 다된 것에 흥미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통상 유행에 민감한 기념화폐의 생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념주화처럼 유행을 심하게 타고 시중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종도 드물다。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호주머니가 웬만해서는 선뜻 사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몇천개 정도는 더 팔릴 것으로 李씨는 내다봤다。

그는 『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기념 주화 수요자가 늘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특히 올림픽등 경기에 관계되는 주화가 인기인데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장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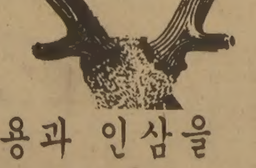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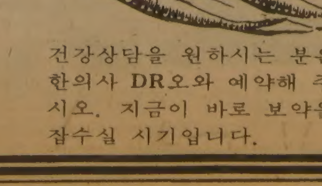
전 인류의 체육제전으로 주화의 발행목적이 뚜렷하고 도안이 아름다우며 코인의 실질적인 소재가치가 높고, 스포츠에 대한 인류의 관심도 간점차 높아진 때문이다。또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읽어볼수 있을뿐 아니라 화폐의 회소도에 따른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는 안내광고가 말해주고 있읍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₂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₂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燕山主의 魅力 <10>

한국의 恋人들

女性美의 開拓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은 유례 없는 호색한이었던데다가 전국에서 미녀를 3천명이나 선발하고도 2만명을 채우려 하였으며 장녹수등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국고를 탕진할만큼 선물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왕인가. 그러나 그만큼 애인에게 많은 선물을 한 예를 찾기 어렵고, 그만큼 심미안이 뛰어난 남자가 다시 없으며, 여성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남다르니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할까, 그를 칭찬해야 할까?

연산은 여성문화의 개척자다。어떤 공로인지 그의 공적서를 꾸며보자。

성종의 엄격한 통제하에 양육되고 여자와 격리된 채 어머니의 애정마저 느끼지 못하고 성장해서 그런지、무작금(연산의 兒名)은 성인이 되자 여자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는다。관심이 애정으로 바뀌어 많은 여자를 본능적으로 소유한다。그런데 그는 여자를 보는 눈이 뛰어나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남다르다。

그는 자신이 천하 제일이라고 자부하여 중국의 황제처럼 3천궁녀를 거느리려 한다。그래서 채홍사를 각도에 보내 미녀를 선발했다가 이들을 예인(藝人)으로 훈련시킨 뒤 135종류로 분류한다。몇가지 이름을 들어보면、가인(佳人)、재인(才人)、여인(麗人)、미인(美人)、선인(嬋人)、연인(姸人)、미인(媚人)、무인(嫵人)、정인(精人)、옥인(玉人) 등…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부른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연산의 심미안(審美眼)은 이처럼 예사롭지 않았다。

그런데 연산은 이들을 천하 제일의 제왕에 어울리는 궁녀로 훈련시키는 동시에 치장시키려고 마음먹었다。때문에 1503년 11월9일에 화장품 제조를 명령한다。『당분(唐粉) 50근을 대궐로 들이고 향분(鄕粉)을 만들어 들이되 빛이 푸르게 하지 말라』하였다。당시의 분은 납 성분이 함유되었기에 푸르렀고、푸른 분은 납독을 일으켰기 때문에 납독을 제거시키라고 한 것이니 연산은 화장품의 성분까지 잘 아는 멋장이였다。여성입장에서 보면。

또 12월9인에 긴 가발 1천개를 대궐로 들이라 명령하고、이튿날엔 대빗・나무빗・앞머리꽂이 제조를 지시했다。또한 이듬해 1월14일에는 거울 만드는 기술자를 소집하고、5월에는 거울 20개를 빨리 만들라고 독촉하고 있다。왕이 직접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신하 가운데 그만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뛰어난 멋장이여서인지 연산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게으른 기생을 추려 처벌한다。그리고는 궁궐 안에 기생들이 화장하는 곳을 마련해준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화장품을 지급해주기도 한다。그러나 홍화(紅花・연지제조원료)、백랍(白蠟・크림원료)을 아무리 징발해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기생별로 보인(保人)으로 지정토록 하고 보인으로 하여금 기생의 옷과 화장품을 대도록 제도화한다。

그런데 기생은 항시 화장해야 한다고 엄명한 연산왕이지만 자신이 기생을 간택할 때는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 차림을 하라고 지시한다。

화장의 효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화장했을 때와 화장하지 않았을 때는 판이한 점을 그러기에 그는 보염사(補艷司)라는 특별관청까지 만들어 기생의 옷・장신구는 물론 화장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이처럼 연산은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기술발전에 기여하고、여성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화장술 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다。

뿐만이 아니다。

연산왕은 옷감을 짜도록 자주 명령하고 옷 만드는 일에도 직접 간섭했다。

아울러 종사자를 우대하였다。옷・비단옷감・장신구 제조를 자주 지시하여 가죽기술자・가죽옷기술자・신발기술자・금속기술자・수레기술자에게 고정월급을 주고 때로 보너스를 내리는 등 우대하였다。또 뛰어난 기술자를 스승 삼아 각 분야의 기술자를 훈련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런 우대나 훈련이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위해 독려되었지만 최고 통치자인 왕이 진두지휘하였으므로 기술의 연마와 발전이 필연적이지 않았겠는가。예를 들면 왕이 1503년8월10일 붉은 봉선화 꽃가지를 보이며『상의원(尙衣院)에서 명주・생초(生綃)・베를 각각 재단하여 이 꽃색으로 물들이라』고 명령했는데 왕명이 절대적이었으니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염색했을테고 그러다 보면 기술이 진보하는게 아닌가。

또、우리나라 역사상 연산왕만큼 보석을 좋아한 임금이 없다。그는 단순한 보석 애호에 그치지 않고、보석 채굴을 독려했고 보석가공을 장려했으며 그것을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 후궁과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그러므로 연산왕시대에 장신구가 발달했다。

연산은 진주・백옥・청옥・마노・수정을 매우 좋아했다。(실상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주는 선물용이었다)

누구든 보석을 바치면 댓가를 치렀고 관리가 캐어 바치면 포상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보석 산지를 발견하기만 하면 기술자를 보내 이를 캐도록 하였다。

1503년 3월에 경상도 감사(李枯)가 경주 동쪽 30리쯤되는 산골짜기에서 화마노(火瑪瑙)・백마노・백수정을 각각 십여 덩이나 캐어 바치자 즉시 매장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6월에는 박춘동이란 자가 남산에서 백옥 네 덩이를 발견하여 바쳤더니 관리를 보내 캤고、광릉 산등성이에서 백옥 세 덩이를 발견했다고 신고하자 옥공(玉工)을 보내 더 캐도록 했다。

연산왕은 이렇게 얻은 보석으로 술잔을 만들기도 하고 칼자루를 장식하기도 했다。이처럼 그는 보석의 채굴과 가공・장신구의 발전을 촉진시킨 공로자다。그렇지만 당시엔 물론 후세에도 공로자가 아니라 왕도의 탈선・타락측면에서만 조명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본능적인 색욕에 탐닉하여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인정이 많은 탓에 뭇 여성들에게 이것들을 마구 선물하였으니까。그가 더없이 사랑한 연인인 장녹수에게 준 선물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양이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연산이 중종반정으로 아우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거나 빼앗겼더라도 더 집권했더라면 화장품・화장기술・옷감 제조기술・염색기술・옷제조술・보석의 채굴과 가공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성종은 여성의 개가(改嫁)를 금지시키고 여자의 외출을 제한하고、사치를 금하는등 여성에겐 더 없이 억압적인 임금이었다。반대로 연산은 여성에게 매우 관대하고、온정을 베풀었으며 여성문화를 개화시켰다。그런데도 그의 매력이 무시되고 있다。여성들은 그를 칭찬해야 하고 영원히 연인으로 기려야 하겠지ー。

採紅使보내 全國 美女선발、才藝따라 백35종류로 分類

특별관청補艷司 두고 옷・액세서리・化粧品등 연구개발

繁栄과 富누려온 魔의都市 뉴욕

世界野性紀行

宋肅瑛 記

뉴욕은 19세기 이후 세계 최고의 도시요 미국의 번영과 더불어 최대의 영광을 누려 온 도시다。1700년초 네덜란드 사람들 6천명이 이주해 온 이래 맨해턴섬을 중심으로 1825년 이리운하가 개통되면서 갑자기 붐벼 오늘에 이르렀다。

81년 현 뉴욕은 많은 지성인이 등지고 간 마의 도시이며 1960년도 이전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마이너스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역시 아직도 뉴욕은 인구 1천2백만을 안고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도시이다。

세계 최고라고 함은 맨해턴에 솟아있는 마천루들。다시말해 1백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최근에 완성한 1백40층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맨해턴컴퍼니 빌딩(70층)、메트로폴리탄 라이프 빌딩(52층)、시티 서비스 빌딩(67층) 등 50층 이상의 건물만도 열개나 된다。

이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작은 섬 맨해턴 구역에 모여 있어 과연 세계 최고란 인상으로 다른 도시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81년도에야 60층 건물이 여의도에 들어서는 한국과 비교해 보자。삼일로에 있는 32층짜리 3・1빌딩을 상상하며 1백층 가까운 고층건물 사이를 지나노라면 그 빌딩의 숲이 너무 길고 너무도 높아 어른들도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햇빛이 그립고 하늘이 아쉽고 인정이 아쉬운 도시 뉴욕은 정말 현대 미국의 부와 문명의 상징처럼 하드 드라이、드라이 터치의 도시이다。

1970년 처음 뉴욕에 갔을 때 필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혼자 올라갔는데 이때 친구가 표사는 데가 어디라고만 일러주고 직장에、가버려서 고아처럼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뉴욕을 매일 혼자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너무 높아서 엘리베이터도 중간에서 한번 갈아 타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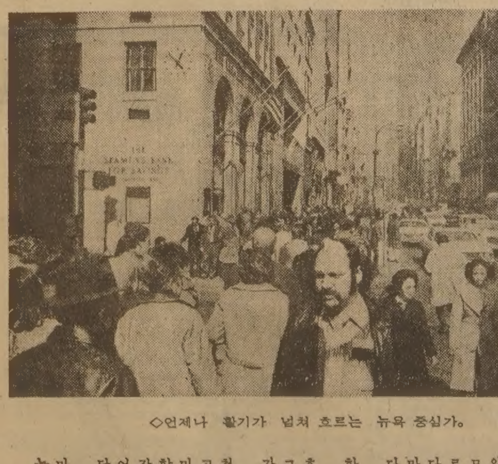
보통 한국의 아파트 11층을 올라가는것의 약9배의 높이 3백80m 상공을 오르는 엘리베이터는 고성능이어서 귀가 찢어지는것같이 아프다。고소공포증이었던 나는 50층에서 겨우겨우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1백2층에 오르니 바람이 세서 모든게 낙엽처럼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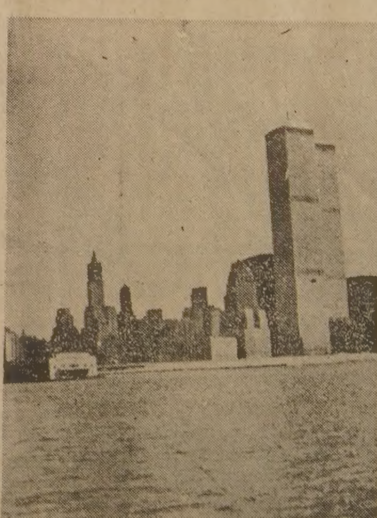
관광객들의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철제의 그물을 쳤는데 그것은 수많은 자살자를 막는 일에서부터 사람이 강풍에 날아가는것을 막는 일까지 여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보는 뉴욕은 정말 장관이었다。

맨해턴섬 중심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동쪽으로는 이스트강、그리고 서쪽의 허드슨강에는 수많은 관광선이 떠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뉴욕。


◇언제나 활기가 넘쳐 흐르는 뉴욕 중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월드 트레이드센터。

할렘街는 맨해턴 歷史와 함께 자라온 區域

우리가 흔히 할렘구역이라고 알고 있는 뉴욕 북쪽의 가난뱅이들의 천국은 할렘강역에 발달한 구역이다。

그러니까 Harlem은 맨해턴의 역사와 더불어 숨쉬고 온 약2백년의 역사를 가진 유명한 구역이다。

현재의 뉴욕은 맨해턴섬을 중심으로 브루클린、퀸즈、리치먼드・브롱크스의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먼저 온 약 8백세로 남쪽으로부터 1街 2街하는 도시계획 구역이 2백42街로 되어 있다。

라디오 시티 뮤직홀이 있는 중심가에서 길을 잃은 어느날 필자는 묵고 있는 YWCA호텔의 주소를 잃고 길가에 주저앉았다。

인공폭포가 있는 워싱턴광장에 신발을 벗어들고 벤치에 주저앉으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세계 인종시장 같은 흑백 그리고 동양인이 들끓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는 슬프기만 했다。

그 외로움은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그들의 바쁜 대답이『아임 낫 뉴요커』이기 때문이었다。그들 모두는 뉴욕인이 아니라는 간단한 대답으로 잠깐의 친절과 시간、정력을 낭비하기 싫어한다。

이것이 뉴요커의 진면목이다。뉴욕에서는 늘 길가는 행인들이 바쁘다。너무 바쁘게 걸어가서 감히 말을 붙일 엄두가 안난다。간혹 친절한 노인들도 있지만 그들도 뉴욕의 지리를 잘 알지는 못한다。그만큼 뉴욕은 마의 도시다。자기가 들어간 게이트를 다시 찾기 힘든 지하철의 복잡함、거리의 소란함、이 모든 것이 서울 촌놈의 외로움을 더해주는 요인들이 됐다。내가 묵은 YWCA호텔만 해도 뉴욕에는 수없이 많다。

서울에는 YMCA 호텔이 한개 밖에 없다。

그러나 수십개의 YMCA 호텔이 뉴욕에 산재해 있다。그러니 나는 꼼짝없는 미아가 될 수 밖에 없다。

높이도 넓이도 너무너무 엄청난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라。우주비행중 미아가 된 기분이 이럴까。할수 없이 나는 워싱턴 광장 근처의 작은 스낵바에 들어가 한잔의 우유로 공포를 달래 본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며 한잔의 우유로 기분을 달랜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이다。그런데 야!

이게 웬일인가。천우신조로 호텔의 키를 주머니에 넣고 나온 서울촌놈은 그 작은 키에 적힌 주소를 찾아 가면 되었다。

바로 그 YWCA 호텔은 내가 앉아 있는「보넌저」라는 스낵바의 뒷블록에 있었다。

주소만 알면 뉴욕에서는 길 찾기가 아주 쉽다。현대적인 도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소 쪽지만 내보이면 운전사는 정확하게 그 집앞에 내려준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뉴욕의 기본질서다。

뉴욕에서 예술인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브로드웨이다。영화관、극장、대중음식점、코인을 넣으면 섹스필름도 볼 수 있고 무수한 성인영화를 大型 스크린에서 상영하고 있는 술과 여자와 사랑과 특히 더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예술의 거리」가 바로 이곳이다。

◇2분만에 한대씩 비행기가 뜨고내리는 세계최대의 케네디공항。

演劇人 으레찾는 브로드웨이엔 술집도 많고

미국의 예술가가 아닌、세계의 예술가들이 모여 밤과 낮으로 그들의 탐미적 인생과 지성적 탐구와 예술적 영감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고 주워모으기도 하는 곳。이곳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헤밍웨이로부터 세계의 석학이 한번쯤은 꼭 다녀간 술집、음식점、영화관、극장들이 있다。

처음 뉴욕에 갔을 때 나는 중국음식점을 애용했는데 어디를 가나 중국음식은 싸고 맛있고 부드러워 세계인의 총애를 받았다。

브로드웨이에는 특히 중국집이 많다。나는 뉴욕에 갈때마다 누가 저녁을 사준다면 꼭 달러가 제값을 발휘하는 차이나타운에 갔다。

차이나 타운의 역사는 2백년이나 된다고 하며 보석상들이 즐비한 곳은 유태상인 구역이다。정치적으로 성공한 애란계 영국인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류사회와 마피아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폭력・상인조직과 FBI도 떠는 암흑세계를 이루고 있다。

영화에서만 보면 뉴욕에 처음 가면 누구나 브루클린 다리의 웅장함과 엠파이어와 세계무역회관과 라디오시티 뮤직홀과 뉴욕공립도서관、메트로폴리탄 오페라、미술관에 가게되며、뉴욕 근대미술관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1929년에 블리스・록펠러부인、구겐하임부인、콜라크부인등의 노력으로 개설된 이 미술관은 그후 53번가에 새로 미술관을 세우고 방대한 수의 근대회화、조각、메생、판화、사진、건축모형、포스터、공업디자인등을 총망라했는데 여성들의 힘으로 세워져 그 운영이 다채롭고 조직적이어서 세계 근대미술관의 효시가 되고 있다。

여성이 우대받고 있는 미국 바로 뉴욕에선 대접받을 만한 일을 여성들이 개척하여 활동함으로써 여성상위라 일컬어 질만큼의 지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권위、그것은 스스로가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지 어디에서 공짜로 날아온 행운이 아니란 것이다。

뉴욕을 좀더 구경하기 위해 친구 아파트에 하숙을 정하고 돌아오면서 뉴욕이 왜 나그네에겐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인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구정 퍼레이드는 뉴요커는 물론 전세계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다。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㊾

입술을 하루종일 무상 대여하겠다는 다혜의 표정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그녀가 내민 사원모집 광고지를 나는 죽 훑어 보았다。어느 곳이든 내 양에 차지 않았지만 어느 곳이든 내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러서 들어갈 만한 곳은 없었다。

『학교에서 추천서 써달라고 졸라。』

다혜도 내 실력을 아는 터였다。시험 쳐서 입사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눈치 챈 것같았다。

『꼴이 비었니。나같은 놈한테 추천서를 써주겠니?』

『주특기 있잖아。악 쓰는 거。』

『통할 데가 따로 있지。』

『찬이가 악 써서 안되는 게 없잖아?』

『안되는 거 있지。말 안듣는 여자 버릇 고치는 거。떠대봤자 별 수 없는 여자지만。』

지난줄거리

다혜와 화해를 한 총찬은 공원 잔디밭에서 다혜의 입술을 훔친다。그리고 가슴도 훔친다。또 마지막 다혜의 모든 걸 훔치려고 한다。다혜는 교묘한 숫법으로도 막아버리고 총찬은 집에 와서 욕망의 불을 참지 못해 은주 누나를 훔칠 생각까지 한다。총찬은 여성지를 펴놓고 혼자서 부끄러운 숨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욕망의 불을 겨우 껐다。

『그런 여자한테 몸 달 거 없잖아? 해치워 버리지 그래。』

『너 말 다했지?』

『대충 다 했을 걸。』

다혜는 이렇게 말하고 내 어깨를 툭 쳤다。

『정말 날 해치우고 싶거든 취직부터 해。』

『내가 한두번 속은 줄 알아?』

『속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니라。』

『얼씨구。』

『한번 취보시지 그래。』

『그만두자。내가 졌다。』

나는 다혜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말싸움으로 해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누가 그랬지。여자는 죽어도 혀만은 살아 있다고。

나는 그 얘길 믿는 편이었다。여자하고 말싸움해서 이긴 사내는 없을 것이다。아니 있다고 자부하는 사내도 있을 것이다。그런 사내는 여자가 져주는척 했다는걸 알지 못하는 바보일 뿐이다。

취직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졸업장을 받으면 어떻게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았다。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계돈 심부름이나 해주면 편히 먹고 살 수도 있었다。그러나 그러기에는 내 스스로 허락할 수 없었다。

은주 누나에게 기대어 사는 것도 할 짓이 아니었다。학생일 때는 몰라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취직한다는 게 썩 마음 내키는 건 아니었다。굽실거려 가며 취직해서 눈치 봐가며 적당히 아양 떨어대야 한다는 게 견딜 것 같지 않았다。어머니에게 졸라서 장사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어머니의 희망은 내가 판사영감이어야만 했다。장사를 한다거나 빈둥거리며 논다는 건 우리 어머니의 피를 거꾸로 뒤게 하는 꼴이었다。어머니는 법학공부를 마치기만하면 거의 모두 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려가면 우리 판사 아들 왔다고 반기는 것 같았다。

나는 설명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의 꿈이 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졸업식 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연극을 할 생각이었다。

우리 대학교 총장이 주는 상장을 나는 꼭 탈 생각이었다。상패 만드는 집에 가서 몇만원만 주면 진짜 총장상 받는 녀석 것보다 훨씬 크고 근사한 상패를 만들 수 있었다。그리고 상품으로는 어머니의 한복감을 장만할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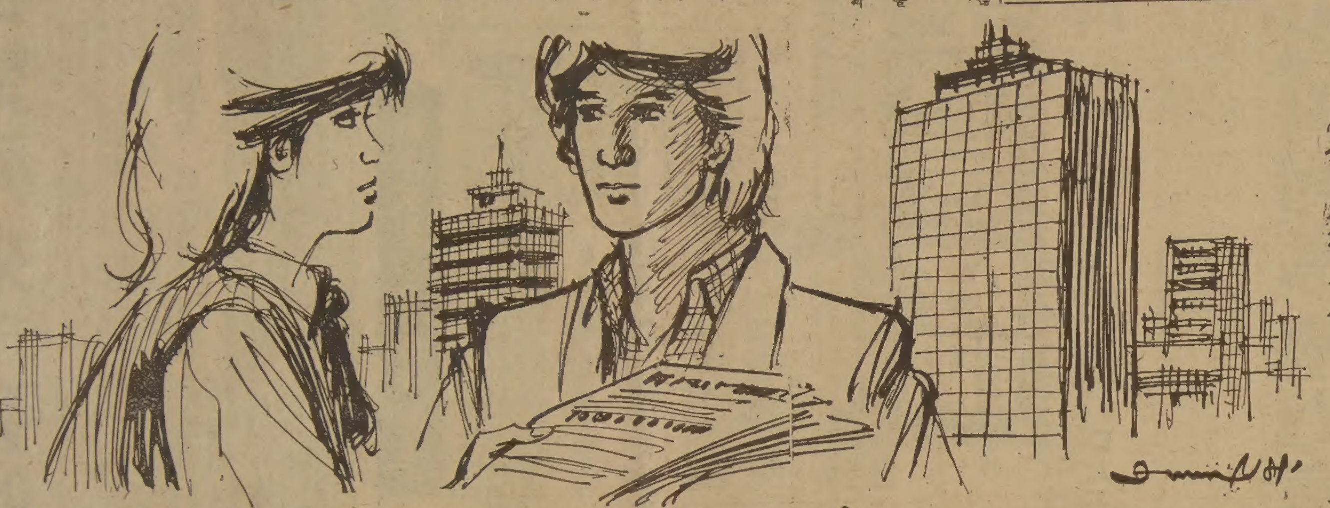
훌륭한 아드님을 길러주셔서 고맙다는 총장님의 감사패와 한복감 한벌을 내가 만들어 드릴 참이었다。

그렇다면 이름 있는 회사의 법무실이나 기획실 쯤에 취직이 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법무실에 취직이 되면 보통 죄인을 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나 큰 회사를 상대로 벌을 주는 판사라고 속이면 될 것 같았다。기획실에 들어가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계획이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요。잠깐이면 됩니다。정말 잠깐이면 됩니다。내가 잠깐동안 판사가 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총무처 근처의 쓰레기통 속에 고등고시 시험문제를 슬쩍 흘려두셔도 좋고 갑자기 판사、검사、변호사들이 몽땅 증발해서 법학과 졸업한 놈은 무조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시킬 수밖에 없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악쓰는게 주특기인데 나같은놈에 추천서 써 주겠니…
傲氣로라도 무슨짓을 해서든지 꼭 入社하고 말테야

오래 해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아무리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 처넣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은 놈이란 걸 하나님은 알잖아요。

K주식회사 정문 앞에 섰다。크고 웅장한 건물이었다。나는 그 앞에서서 K주식회사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묘한 추측이 생겼다。

나 말고도 원서를 접수시키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대개 대학교 졸업반 친구들 같았다。4년동안 공부한 것이 고작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는 준비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그것도 입학시험만큼이나 어려운、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만 한달에 이십여 만원이란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원서를 접수시키면서 나는 그 많은 원서의 주인공들이 모두 이른바 세속적인 일류대학 출신들이란 걸 알았다。그들은 그렇게 피땀 나게 공부해서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것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한때 나는 그들、이른바 일류대학에 다니는 녀석들을 지독스럽게 미워했었다。보통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일류대학 배지를 단 녀석들만 보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 터운 몸살나게 했었다。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켜서 나같은 촌놈、똥통학교나 골라 다닌 녀석들에게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시한 곳을 다녔다는 굴욕감을 씻어주었다。나는 그놈의 대학도 평준화 시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출신성분의 굴욕감을 없애 주기를 바라곤 했었다。

아니 그것 말고 취직하는 것과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평준화 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았으면 싶었다。

K주식회사를 나와서 나는 하루종일 다섯군데에 원서를 접수시켰다。이력서、사진、주민등록 따위를 한무더기나 없앤 셈이었다。

회사도 평준화 시켰더라면…。

결과는 빤한 것이었다。기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제출한 원서가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대충은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약속한 날짜까지 이차필기고사를 보라는 연락이 없자 갑자기 오기가 치솟기 시작했다。원서만 때먹고 단 한군데에서도 시험보러 오라는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애초 내가 골라 간 회사는 국내 정상급 회사가 아니었다。그것은 내 자격지심 때문이었다。똥통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상급인 회사에 원서를 낼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다시 원서를 얻어다가 K주식회사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T주식회사에 서류를 내기로 결심했다。그것은 정말 오기였다。

T주식회사 회장의 불알을 쥐고 늘어지든 협박 공갈을 치든 간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입사를 할 생각이었다。그래서 K주식회사 따위가 내게 보인 퇴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T주식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었다。건물의 규모나 생김새가 정상급 재벌회사라는 걸 증명이라도 할 것 같았다。

원서 접수대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깔끔한 정장차림이거나 제복차림이었다。입사원서는 접수대 위와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마감날이라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넓은 복도를 꽉 메우고 있었다。가슴에 단 배지는 거의 모두 일류라는 증명서였다。

나는 슬그머니 기가 죽는 기분이 되었다。그러나 이대로 돌아서고 싶지는 않았다。커닝이라도 하는 거다。그것도 아니면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의 목을 옭아 쥐더라도 입사하고 말겠다。만약 그런 게 통하지 않으면 회장을 만나서 우격다짐으로라도 취직을 하고 말 생각이었다。

나같은 녀석이 한 놈쯤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는 걸 보이고 말겠다。

접수대 앞에 섰다。부끄러운 입사원서를 내밀었다。입사원서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T주식회사가 원래 유명한 회사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신입사원 지망생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돌아서서 나오는 체하면서 슬쩍 내 입사원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았다。

큰통 속으로 들어갔다。그 통속에는 하나 가득 입사원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옆의 통속에는 많지 않은 원서가 들어 있었다。나는 가슴이 뜀질하는걸 참으면서 유심히 원서들을 살펴보았다。내 원서는 그자리에서 회송당하는 것같았다。

『쌔애끼들…이런 걸 뭐하러 내는 거야。귀찮아 죽겠네。』

삼십줄로 보이는 신사가 이렇게 원서를 분류하면서 말했다。

『이러다 말썽나면 어쩌죠。』

『그럼 어떻게、일일이 검토하나? 시간도 없고…。』

『Q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접수대앞에 있는 사내와 신사가 계속 작은 소리로 주고 받았다。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삼십대일이 넘겠는데요。』

『아까 많이 넣었으니까 빼내버려。』

신사가 대답했다。나는 Q대학이 세속적으로 일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류대학이라고 하기엔 실력이 넘치는 대학이란 사실 때문에 귀가 번쩍 뜨였다。

『쌔애끼들…똥통학교 자식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원서 디밀고。그래。사람 귀찮아 죽겠구만。』

『누가 아니래요。이런 자식들 대학시험 볼 때도 으례 떨어질거 알면서 혹시나 하고 디밀던 자식들이라구요。』

젊은 사내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이제 내가 제출한 원서의 행방을 알것같았다。접수를 보던 사내들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의 서류만 접수를 받아놓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받아서 쓰레기통 속에 처넣는 것이었다。

하기야 내가 접수대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되겠지만…。

귀찮게스리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원서를 디밀어
뭐 똥통학교 새끼들이라구、일류 떼거지들아 덤벼라

아무리 그렇더라도 참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어차피 내 입사원서는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한시간 후면 재가 될 판이었다。

『여봐、형씨。이 통 속에 들어 있는 원서는 언제 태울 건가?』

내가 접수대 앞에서 이렇게 소리질렀다。사내가 나를 올려다 보고는 피식 웃었다。

『여봐요、원서가 많아서 담아두는 거요。당신 뭐야?』

『똥통학교 자식들이 건방지게 원서 냈다 이거 아냐?』

나는 접수대를 훌쩍 뛰어 넘었다。사내가 앉은 채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떤 녀석이 말하는 거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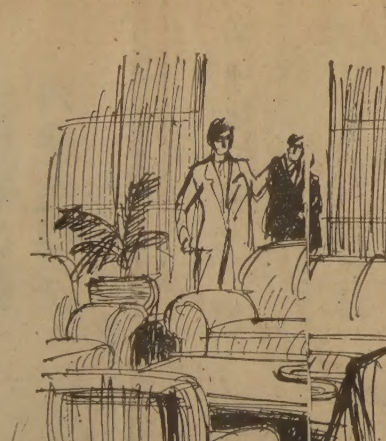
나는 그런 사내 앞에 주먹을 내 보였다。

『이 새끼야、내 궁구멍이 얼마나 밝은 줄 알아? 뭐가 어째? 똥통학교 새끼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대갈통을 부셔버릴테니까。』

나는 사내의 멱살을 잡아 소퍼 위에 내던졌다。사내가 나뒹굴자 접수보던 계집애들은 귀퉁이로 숨었고 사내들은 우르르 덤볐다。

『덤벼라、이 일류 떨거지들아。그래 이 새끼들아、바로 내가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일류 대학에 원서냈고 여기에도 원서낸 놈이다。어쩔테냐 이 새끼들아。』

나는 닥치는대로 사내들을 조겨버렸다。열댓명쯤 되는 사내들이 모두



이구석 저구석으로 쑤셔 박혀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좇아왔다。나는 경비원들도 접수대 책상밑으로 쑤셔 박았다。

『네가 책임자냐?』

아까 그 신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물었다。

『그렇소。』

『아까처럼 반말 왜 못해 새끼야。』

나는 녀석의 턱을 한대 갈기고 나뒹군 녀석을 일으켜 세웠다。

『느네 왕초한테 가자。』

사내는 주춤주춤 떼미는대로 걸었다。엘리베이터에 녀석을 집어넣고 이십층의 버튼을 눌렀다。엘리베이터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실이 이십층 맞죠。』

『예。』

『아가씨도 일류학교 출신요?』

『네?』

『아뇨、그냥 물어본 거요。』

나는 쾌속으로 20층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사내에게 물었다。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A대학요。』

『너 혹시 Y대학이라고 알아?』

『압니다。』

『그 대학이 똥통학교냐?』

『……。』

사내는 대답대신 고개를 숙였다。

『너 여기서 계급이 뭐냐?』

『과장입니다。』

『몇살 처먹었냐?』

『서른 다섯입니다。』

『느네 회장이 똥통학교 출신 다 빼라고 시키더냐?』

『……。』

사내는 아무 말 없었다。나는 이십층에서 내려 카피트 깔린 복도로 걸어갔다。비서실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곳에서 나를 막았다。

『회장 만나러 왔다。비켜라。』

내가 건장한 사내를 떼밀었다。사내가 벌렁 나자빠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우렁한 소리와 함께 운동깨나 해본것 같은 사내들이 몰려 나왔다。

『회장 만나러 왔댔잖아!』

나는 앞쪽에서부터 닥치는대로 후려갈겼다。비서실직원은 아래층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앞에 섰던 건장한 사내들 너댓명이 나가떨어지자 뒤쪽에 있던 사내들은 멀거니 서있기만 했다。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문을 벌꺽 열었다。그 안에가 진짜 비서실인것 같았다。

『회장 계슈?』

나는 사내의 멱살을 쥔채 이렇게 물었다。

『안 계신데…。』

말이 채 끝나기전에 나는 회장실문을 발로 찼다。문이 열렸다。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회전의자에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나는 사내를 그 앞으로 내던졌다。사내가 데굴데굴 굴러서 회장앞으로 뒹굴었다。

『회장되슈?』

『그렇습니다만…누구십니까?』

노신사는 나를 소퍼 있는 쪽으로 앉으라는 시늉을 했다。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에 있는 녀석을 올려붙였다。

『다들 나가 있거라、어서!』

노신사가 엄하게 소리쳤다。사내들이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르르 물러 나갔다。

『앉아요。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봐요。』

회장은 내가 앉은 소퍼로 천천히 걸어왔다。조금도 어색한 표정이 없는 대담한 자세였다。왠지 보통 늙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똥통학교 출신은 원서도 받지 말라고 했읍니까?』

내가 저돌적으로 물었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군요。』

『전 Y대학 출신으로 입사원서를 냈던 사람입니다。그런데 제 원서가 접수대에서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읍니다。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똥통학교 새끼들이 감히 T주식회사에 입사원서를 냈다고 투덜거렸읍니다。신문 공고에는 분명히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든 원서를 낼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었읍니다。』

나는 신문 공고 오린 것을 회장 앞에 내던졌다。

『그러면 아예 첨부터 일류대학 출신만 뽑는다고 광고를 낼 것이지 어째서 원서를 받은 뒤에 시시한 대학 다닌 것도 억울한데 쓰레기통 속에 처박느냐 이겁니다。우리가 쓰레깁니까?』

나는 씩씩거리며 언성을 높였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소、젊은이。무슨 뜻인지 알겠소。난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소。변명으로 들어요。내가 총책임자니까 이게 모두 내 잘못이오。용서하시고 추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그러면 되겠소?』

너무 시원스럽게 나오니까、할 말이 없었다。

『그럼 가겠읍니다。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시험은 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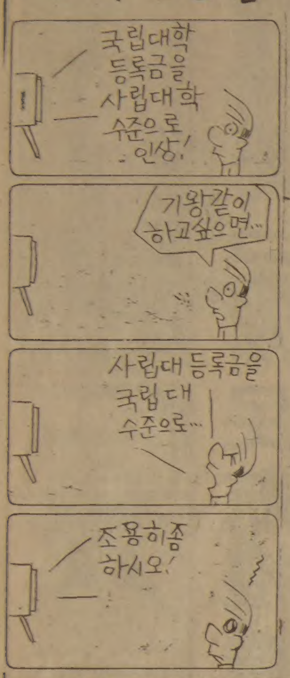
『봐야 떨어집니다。』

『사내가 칼을 뺐으면 쳐야지요。시험을 봐요。꼭。』

나는 노신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다음주에 계속〉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209〉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YOU DID A GOOD JOB.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초청 case로 이민온 한대학생이 학교에서 영문법에 관한 시험을 보게 되었다。한국에서도 문법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터인지라 시험결과는 단연 미국학생들을 누르고 1등을 하게 되었는데 한 classmate가 다가와서 어깨를 치면서 You did a good job. 이라고했다。

good job이라는 말에 좋은직장을 구했다는말로 착각을하고 얼른「직업을 못구했다」며 I don't have a job.이라고 했다。그말을들은 미국인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

이때 do a good job이란「무슨일을 잘처리 해내다」는 뜻으로서 같은반 학생이 한말은「이번 시험을 잘해냈다」는 의미로 한말이었다。

연설을 훌륭히해낸 사람에게 You did a good job. 하면 될것이고 외국인 buyer 와의 상담을 잘해내서 큰거래(deal)를 튼사람에게 You did a good job. 하면된다。

반대로 잘못해낸 경우에는 a bad job 을 사용해서 He did a dad job on his piano recital. (그는 피아노독주회를 잘못해냈다) 고 하면되고 시계수선을 시켰는데 엉터리로 고쳐논 사람에게 He did a dad job on my watch 라고 하면된다。

—Jerry, I was very happy with your presentation yesterday.
—Thank you, sir. I did my best.
—Well, you did a good job. You had some excellent ideas.
—I enjoyed working on it.
—I want you to do another presentation next month.
—Thank you.
—제리, 어제 자네의발표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감사합니다。최선을 다했죠。
—아주 훌륭히 해냈어。근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군。
—이런걸 준비하는게즐거웠읍니다。
—다음달에 또하나 해주기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 I did my best : 최선을 다했다。did는 대화체로 발음할때는「더드」가 아니고「딧」。

본 칼람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東京-北京 민간旅客機 노선
한국 領空통과 許容
국제民航機構、二元案(南韓통과 北韓통과) 제의
政府、원칙贊成…來1월에 協議

정부는 일본과 中共간의 韓半島上空을 통과하는 航空路線開設에 있어 국제民間航空機構(ICAO)가 제시한 2元航路의 동시개설을 지지한다는 원칙아래 南韓상공통과 直線노선개설을 위해 中共과 교섭을 벌이는 한편 내년1월 코타이트 ICAO 理事會의장의 訪韓을 계기로 이 노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金東輝외무차관은 11일 국회外務委에서 이같이 밝히고 ICAO측이 南北韓의 정치현실을 고려、제시한 2元 항로는 東京-서울-北京의 南韓노선과 東京-瀋陽-北京의 北韓노선이라고 설명했다。

北韓통과案은 管制問題등 日등서 기피

그는 또『상호균등하고 편리한 ICAO측 2元항로의 동시개설을 관철시키되 일본측으로 하여금 北韓항로를이용치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金차관은 이어『일본과 中共간의 항공노선이 한반도상공을 통과하는 문제는 현재 한국、北韓、일본、中共등관계당사국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된 ICAO가 주선하고 있다』고 밝히고『코타이트의장이 당사국들의 의견타진을 위해 내년1월 서울과 東京및 平壤과 北京을 巡訪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北韓이 지난 11월4일에 北韓과 ICAO측이 東京-元山-平壤-北京노선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ICAO는 당사자간의합의를 주선하는데 불과하며 일본-中共간 直航노선개설을 위해서는 직접 당사국인 일본、中共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현재 北韓은 민간항공관제기술 및 시설면에서 落後되어있기 때문에 항공노선을 개설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망했다。

金차관은 이어『韓日양국은 ICAO측의 2元路線동시개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정부는 南韓상공을 통과하는日-中共간 複數노선도 검토하고있다』고말하고『日-中共간의 直航노선개설문제의 원만한 타결을위해 ICAO및 관계국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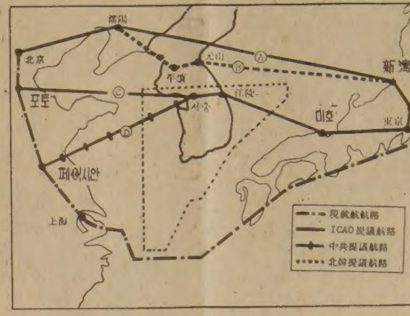
日-中共간의 航路는 74년4月 東京-北京路線이 개설된이래 濟州道남쪽(東支那海)상공을 우회하고 있는데 이路線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直航노선으로 바뀔경우 비행시간이 현재의 4시간40분에서 1시간20분 단축된다。

이에따라 항공시간의 단축과 연료절약을 위해 直航노선開設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관계당사자인 한국、北韓、日本、中共간의 외교관계不在로 직접협상은 불가능하기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해3월 4者간의 비공식회담을 제의한바있는데 北韓측은「南北분단을 영구화한다」는 구실로 반대、ICAO가 주선에나서게된것이다。

東京-北京간 直航노선개설문제에 있어 일본측은 현재 ICAO측의 2元항로開設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南北韓의 정치현실을 감안、早期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北韓과 통과노선이용 문제는 北韓과 외교관계가 없기때문에 고려치않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中共은 2元항로개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北韓통과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南韓통과노선 설정문제도 반대하지는 않으나 渤海灣통과는 거부하고 있다。

ICAO측이 제시한 2元항로중 東京-瀋陽-北京노선은 3시간10분、東京-서울-北京노선은 3시간30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며北韓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東京-元山-平壤-北京노선은 3시간18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對中共정치적 重大配慮
4者關係 구체적 이슈로登場
北傀는 北쪽上空통과만 고집

정부가 한반도상공을 통과할 日·中共항로개설을 환영하고 나선것은 韓半島정세 내지 韓·中共간의새로운 관계변화라는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정부가 11일 金東輝외무차관의 국회보고를 통해 日·中共민항기의 한반도上空을 허용한 것은 日·中共간의 단순한 直航노선을환영했다기보다는 中共에대해 정치적인면에서 우리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信號로평가해야할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東北亞관계、다시말해서 南·北韓과 中共 일본등 4者관계가 日·中共民航機의「한반도上空통과」를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이슈로 부각한 것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東京-北京간 航路는 日·中共국교정상화의 副産物로 지난74년4월부터 개설된 항로다。東京을 떠난 일본의 JAL機나 中共민항기는 濟州道南端을 우회、上海를 거쳐 北京에도착하며 왕복코스도 마찬가지다。따라서 東京과 北京간에는 直航노선이 없는 셈이다。

현재 ICAO側이 구상하고 있는 2개의 複線라인은 東京-서울-北京의 南韓상공통과라인과 東京-瀋陽-北京의 北韓상공통과등 2개라인이다。ICAO측 提議에 대해 우리가 2개라인을 모두 환영하고있는데반해 北韓은 後者인 平壤상공통과라인만을 고집하고있다。

한편 中共은 이같은 二元航路개설에는 소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渤海灣의 油田개발문제로 이 油田의 상공을 나르게된 東京-瀋陽-北京라인의 개설에는 주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다시말해서 北韓측 찬성案자체에 대해 깊이 懷疑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平壤상공을 나를 日·中共민항기가 평양측관제탑과 교신할 경우 平壤측관제사가 英語가 不通인데다 不時착륙에 대비한 공항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탓에 日·中共 두나라 모두가 平壤상공통과를 어려운 문제로 보고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서울 또는 群山상공등 어느쪽이나 日·中共측이 편리한 항로를 택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주 平壤방송이 北韓상공통과를 하나의 결정된 사실인양 보도한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北韓과 ICAO간의 합의에 따를 사항이 아니라 관련당사자인 日·中共과 南北韓의 4者문제라는점에서 北傀의 상투적인또 하나의政治宣傳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있다。

東京-北京간 直行라인이 개설될경우 비행시간은 1시간20분이 단축되며 이에따라 막대한 양의 연료가 절약된다。그러나 정부가 한반도상공통과를 허용하고 나선것은 日·中共측에 이러한 物量上의 편익을 주기위해서라기보다는 中共에대한 정치적配慮때문으로 보는것이 정확한 진단일성 싶다。

따라서 앞으로 ICAO측의 주선、仲裁에의해 中共에 나타날 태도여하에따라 韓·中共관계는 새局面으로 진전될것으로 전망된다。【金勝雄기자】

◇産業別및 需要項目別 成長率

前年同期比 (%)

	1980 上半期	1980 3/4	1980 1/4~3/4	1981 上半期	1981 3/4	1981 1/4~3/4
GNP 成長率	-3·8	-2·1	-3·2	2·4	6·2	3·7
農林漁業	-15·7	-2·0	-9·7	3·8	6·8	5·2
非農林漁業	-2·8	-2·2	-2·6	2·3	6·2	3·6
鑛工業	-2·3	-1·6	-2·0	5·3	10·4	7·0
(製造業)	(-2·3)	(-1·5)	(-2·0)	(5·4)	(10·3)	(7·0)
社會間接資本	4·1	1·1	3·0	0·2	5·3	2·0
其他서비스	-6·5	-4·4	-5·8	-0·2	1·9	0·5
總消費	-0·7	-0·6	-0·7	3·9	5·0	4·3
民間	-0·5	-1·9	-1·0	3·8	5·8	4·5
政府	-2·0	8·1	1·3	4·7	0·3	3·2
國內固定投資	-11·9	-11·1	-11·6	-10·3	-5·1	-8·5
總輸出	3·7	6·4	4·6	21·3	19·5	20·7
(商品)	(11·6)	(7·5)	(10·1)	(22·8)	(22·7)	(22·8)
總輸入	-6·1	-3·5	-5·3	10·5	14·3	11·8
(商品)	(-11·0)	(-9·4)	(10·5)	(5·4)	(11·7)	(7·5)

輸出輸入商品은 FOB基準임

農漁業·鑛工業분야등 好調
3·4分期 GNP 6·2%成長…施設투자는감소

올해 3·4분기중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은 6·2%에달해 지난79년 2·4분기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韓銀이 발표한 3·4분기(7~9월)중 국민총생산은 7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3조5천1백16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2%의 실질성장을 이룩했으며 1·4분기의 1·1%와 2·4분기의 3·5%에 이어 성장세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이에따라 올들어 9월말까지의 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하게됐다。올상반기중 성장률은 2·4%였다。

3·4분기중 GNP성장률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된것은 ①수출수요의 호조와 민간소비확대에따른 국내수요의 부분적 회복으로 제조업생산이활발해지고②과실채소류등의 증가로 농림어업부문이 호조를 보인데 원인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오는4·4분기중에는▲米穀의 풍작과▲투자감소세의 둔화등에 힘입어 이례적인 고율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올해 연간성장률은 당초예상했던 6~7%수준을 넘어 7%이상을 기록하게될것 같다고전망했다。

3·4분기중 국민총생산의 산업별동향을보면 ①농림어업부문이 채소및 과실류생산호조와 어업부문의 호조로 6·8%의 비교적 높은성장을 이룩했고 ②광업도 수출수요호조와 내수의 완만한회복에 힘입어 10·4%의 높은 성장을했으며 ③사회간접자본부문과 기타 서비스부문은 각각 5·3%및 1·9%씩 성장했다。

총소비는 소비심리의 부분적회복으로 5·0%증가했고 국내고정투자는 5·1%감소했다。특히 기계시설투자는 그 감소추세가 현저히 둔화되기는 했지만 투자심리가 아직 본격적으로회복되지 않아 8·1%나 감소했다。

올림픽對備 體力章制개선
國校5~6年生 체조·수영·궁도 開發
政府、豫決委 답변
低硫黃油도입 우선…脫黃시설 공장增設때

국회豫決委는 11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12일부터 5개分科委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심의에 착수한다。

豫決委는 오는20일까지 分科委별 심의를한뒤 23일부터 전체회의를 續開、部別심의를 다시 한뒤 26일부터 計數조정작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9조5천9백56억원의 새해예산안은 정부의 대폭적인 기구축소이전에 작성된것이기때문에 정부가 修正案을 내지않고 豫決委 심의과정에서 상당액을削減조정하기로 정부와 民正黨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지막 정책질의에는 14명의 의원들이 나서 國政전반에 관해 물었다。

申秉鉉부총리는『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低유황原油도입및精製油공급▲脫黃시설설치▲重質油 改質시설 설치등 3가지 방법이 있으나 脫黃및 改質시설설치는 설치기간이 긴데다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低유황유도입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脫黃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는 세계原油수급동향을 유의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앞으로 精製油공장증설때 탈황시설설치가 불가피할경우 저유황원유도입과 함께 탈황시설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李承潤재무장관은 상속세의 人的공제액을 이번 稅法개정안에서 4천만원선까지 올렸기때문에 더이상 올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鄭泰秀문교차관은『88년도 서울올림픽에 대비、體力章제도를 재검토할때가 왔다』고전제、『특히 종목배점등을 재검토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의 國校5~6년생에게 체조 수영 궁도등을중점개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財務委 稅法심의
컬러TV 特消稅 조정키로

국회 재무위는 11일 稅法심의13人 小委(위원장 鄭順德)를 중심으로 정부가제출한 교육세법등 10개 稅法案과 民正黨이 제출한 5개 稅法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稅法小委는 오는17일까지 5차의 축조심의를통해 小委修正案을 마련할방침이다。

小委의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정책질의과정에서 정부안은 稅法체계의 정비필요성、內國稅法 체계에 있어서 彈力稅率제도의 존속여부검토、執行權의 남용이나 행정편의를위한 위임立法등이 지적되었다고 밝히고 교육세법 소득세법 法人稅法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등이 중점적인 修正대상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관계자는 교육세법의 경우 野黨측은 稅신설을 반대하고있으나 정부안중 재산세부가방법을 전면 철회하는선에서 修正案이 마련될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경우 재산세부가분은 은행의法人稅를 인상시키는 방안、酒稅에 대한 확대과세안、고소득자에 대해 重課하는방안등이 검토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民正黨측 小委위원들은 국민의 稅부담 輕減이라는 측면에서 재산세를철회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시한성 目的稅대신 지속적목적세로 전환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與野의원들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경감이라는 측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人的공제액을 정부안 11만원보다 인상조정한 절충안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民韓黨은 근로소득과 상여공제를 통합하되 한도액을 연2백만원까지 요구하는 한편 稅額공제율의 경우도 월50만원소득이하는 20%、20만원소득이하는 30%로 확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民正黨측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의 下限線 82만원을 소폭인상하고 90만원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공제도 일부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보인다。

특별소비세법의 경우 탄력세율을적용받다가 사실상 세율을 인상키로한 냉장고、컬러TV등 일부품목에 대한稅率조정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천연과즙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적용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될것으로 보인다。

콜럼비아號 카운트다운
오늘밤 10시 發射

【케이프카내베랄10日(로이터=聯合)】미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2차발사를 위한 카운트 다운이 10일하오 10시(한국시간·이하같음) 개시됐다。

콜럼비아호는 기상조건등 만사가 순조로울경우 카운트다운 개시47시간반후인 12일하오9시30분 발사되어 5일간 지구궤도를 84회 선회한뒤 오는17일 캘리포니아주 사막지대의 에드워즈공군기지에 귀환하게 된다。

콜럼비아호는 원래 지난4일 발사되어 2차비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발사31초전 수력학장치내의 유류오염이 발견되어 발사가 연기된바있다。

버스 黑·赤字노선 공동 운영制 도입
尹交通 밝혀

尹子重교통부장관은『財源조달의 어려움때문에 서울지하철 3·4號線 건설工期를 1년간 연기할수밖에없다』고 말했다。

尹장관은 이날 국회交通委에서 首都圈교통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그러나 서울시민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문제해결을위해 가급적이면 早期완공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노력하겠다』고말했다。

그는『大田등 7개 도시에서 시행중인 버스의 黑字、赤字노선의 공동운영관리제는 적극 도입토록 노력하겠으며 연구기관에 용역을주어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결론을내리겠다』고 말하고『增車를 기피하는 市변두리지역 버스업자에게는 강제명령을 해서라도 增車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은 이 자리에서『지하철3·4號線공사를 예정된84년까지 완공하기위해서는 1천6백86억원의 부족자금을 조달해야하는데 이중 1천여원을 公債발행으로 소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6백86억원은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없게되어있다』면서『이를 국내외의 차입 또는 정부지원으로 충당할수밖에 없는데 차관조건、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工期를 1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連動制 실시

地平線

老妄猖狂、少妄棒이란말이있다。노인들은 큰얼굴을하고、젊은이들은 점잖아야 된다는 중국말이다。敬老사상이 투철한 동양에서 노인들의 태도、표정마저 서양사람들과 다르고 어던지 活氣에 차있는 것이 특징이다。▼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큼 敬老傳統이 강한나라는 없었다。다만 近代化의 물결로 核家族사상이 잘못전해져 오늘날에와선 사회의 그늘에서 서러워하는 노인들이 차츰 늘고 있는 것이 우리현실이기도 하다。정부에서는 이전에 착안、老人들의 딱한 문제에 눈을돌려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간다고한다。내년 어버이날을 계기로 老人憲章을 선포하고、현재 70세이상으로되어있는 노인優待制도 내년부터65세로 낮춘다는것이다。그뿐아니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成人病등록관리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라니 반가운소식이다。▼百善孝當先、萬惡淫爲首라고 孝를 百善의으뜸、淫을 萬惡의 뿌리로、머리에선 생각하면서도 孝道를가슴에 풍릉하게 느끼는것은 역시 나이가들어야되는 모양이다。우리사회도 경제성장이 어느수준까지 올라서니까 老人福祉에 눈을 떴다고 볼수있다。하나 老人福祉와함께 생각해야될 문제가많다。다름아니라 노인들에게 정년퇴직후에 사회봉사활동을 다시할수있는 기회를 줘야하는 일이다。정년퇴직이래야 50세를갓넘은 노인아닌 노인이많은 현시점에서 이들에게떳떳한 제2의 인생을 마련해주는일은 뭣보다 급하다。▼低床버스、敬老席、養老院、老人亭도 좋지만 老人能力은행같은 기구가 좀더 활발해져야 노인들의 일자리마련이 쉽게되고 노인들의 눈에 정기가 되살아날것같다。또 청소년지도나 거리정화운동에도 노인들이 지도자로 적극 참가하면 삶의 보람을 더찾을수 있지않을까。말하자면 노후의 환경조건을개선해주는것과 함께 인생의 자신감을 심어줘야 삶의보람、삶의즐거움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다。▼老子가 말하는 長生久視가 물질적인면과 정신적인면에서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노인이란말이 엮겨우면 일본처럼 高年이란 말도 생각해봄직하다。養老院도 단순한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老人파워를 발휘할수있는 기구가되면 더좋겠다。평생교육、재취업、직업훈련도 더폭넓게 생각할것의 하나다。돈있는 有閑層만 다닐수 있는 헬드클럽도 노인네들이 가벼운 운동과 함께 건강법을 익힐수있는 시설로 탈바꿈해야될것 같다。건강은 男女老少모든이에게 필요한 것이다。지금은 젊어도 몇년 몇십년이 지나면 누구나 노인이되게 마련이다。노인들이 큰얼굴하고 사는 사회라야 제대로된 사회인 것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통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경복동창 회원제위

금년도 경복 동창회 X-Mas 파티 겸 망년회를 아래와같이 갖고저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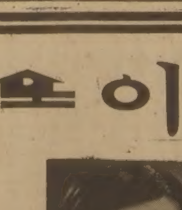
일 시 : 1981년 11월 28일(토요일)
오후 6시30분—새벽1시 까지

장 소 : Don Valley Holiday Inn
(Don Valley & Eglinton)
"Barcelona Room"

연락처 : 이윤호 275—0035
남상현 846—2444
채희홍 449—6365

경복중.고교 동창회 배

이대환 不動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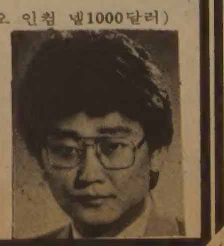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 푹 쉬는 비즈니스 주5일(토·일 쉼)
Take out 카페테리아 아스킹 189,000.- 리스 5년+5년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첨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MARVIN ST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3132 EGLINTON AVE. E.
TEX REBAT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北京주재 佛외교관 同居여인 實刑宣告로

佛·中共 外交紛爭조짐

"兩國관계 惡影響 우려" 佛
"國內문제 介入은 不當" 中共

◇北京주재 프랑스대사관의 중공국내정치및 반체제문제전문가인엠마뉴엘·벨르프루와씨 (33) 와 그의 중공인연인 리·슈앙씨 (25) 의 다정한한때。

【北京10日AP=聯合】北京주재 프랑스외교관과 동거했던 한 중공여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중공간에 외교적마찰을 빚고있다.

중공을 방문중인 미셸·조베르 프랑스대외무역상은 이 사건에 대한 중공고위지도자들과의 협의에도불구하고 리·슈앙 (25) 이라는이름의 이 여인이 2년간의 노동재교육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전해지자 10일 2차례의 회담과 1차례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로 인해 양국관계가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조베르 대외무역상은 이날 鄧小平과의 회담을마친후『프랑스 국민들이 이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중공방문기간중 실형선고가 내려진데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공방문이전에 실형선고가 내려졌더라면 그의방중을 연기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 鄧小平·趙紫陽과도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그들이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공국내 문제이니만큼 프랑스가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수상趙는 리·슈앙여인과 동거했던 프랑스외교관이 중공반체제인사들을 지원했다고 비난한것으로 알려졌다.

화가인 리·슈앙여인은 중공국내정치및 반체제문제 전문가인 프랑스외교관 엠마뉴엘·벨르프루와씨(33)와 외국인 주거지역내의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해오다 지난 9월9일 10명의 사복경찰들에 체포돼 지난주 2년간의 노동재교육을 선고받았다.

중공당국은 그녀가 결혼도 하기전에 외국인 남성과동거생활을 했다는데 대단히 분개하고 있으며 벨르프루와씨가 그녀를 타락의길로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벨르프루와씨는 중공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지난10월23일중공을출국, 현재 파리에 머물고있다.

한국軍, 세계7位
英册子, 1位는 中共…3백25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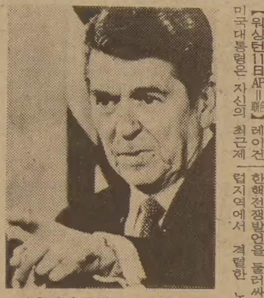
【런던11日AP聯合=特約】런던의 제인스출판사가 11일 발간한 참고핸드북은「세계의 군대」란에서 한국은 정규군52만명에 이르는 세계 7위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책은 베트남군은 정규군 1백만명, 민병대2백만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중공과 소련에이어 세계3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책은 중공군이 3백25만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있으며 소련군 (1백82만5천) 2위, 미국군 (정규75만8백·방위군53만4천) 4위, 인도군 (95만) 5위, 북괴군 (56만) 6위순으로 마크되고있다고 밝혔다.

이책은 영국군퇴역장교인 존·윅스대령이 편찬했다.

"전술核戰, 全面化안돼"
레이건會見 美외교정책亂脈相 부인



◇記者會見하는 레이건 【AP】

【워싱턴11日AP=聯合】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자신의 최근제한핵전쟁발언을 둘러싸고 유럽지역에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음에도 불구, 전술핵을 사용하는 교전이 반드시 세계핵전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그의 지론을 10일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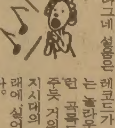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후 다섯번째로 이날 백악관에서가진 34분동안의 기자회견을통해 또 미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일축,엿보기에『미외교정책이 중구난방의 일면이 없지않으나 워싱턴 DC란 때때로 말많은곳』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전장에서 전술무기에의한 교전이있어라도 이로인해 초강대세력들이 핵전쟁에 말려들지는 않을것으로 예상할수있다』는 지난달16일자 미신문편집인과의 회견시 발언에 언급, 『쌍방은 전략무기를 사용하는 교전에 휘말려드는것을 억제할수 있는것으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시위용 핵발사』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해놓고있다는 헤이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이를 부인한 와인버거국방장관의 발언에 관해 질문을 받고 『그것이 나토전략의 일부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것같다』면서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것이 없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헤이그국무·와인버거국방및리처드·앨런 대통령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 미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서로상각한 이견을 보이고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그에 관한 논란은 너무 과장된것』으로 『우리는 외교정책에 있어난맥상을 보이고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메아리
歌謠의 생명력



대중가요는 지금 세계 젊은이들의 국제언어다。새로 나오는 인기곡목은 세계성과 그 유행의 폭발적인 同時性을 자랑한다。소련과 동구권조차 재즈의 파도를 탄다。팝송의 인기가수는 「현대의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솔로 싱어로 빙·크로스비의 존재는 확체처럼 여겨졌다。그가 부른 노래를 담은 레코드는 1960년에 벌써 판매량이 2억장을 돌파했다。이를 기념하여 할리우드상업회의소는 백금으로 만든 레코드 1장을 그에게 증정했다。그후 10년이 지난 70년엔 판매량이 [illegible] 3억장을 넘어섰다。크로스비는 두번째로 기념레코드를 받았다。

1926년 가수로 데뷔한 그의 老益壯의 인기를 증명해준 기념비였다。死後에도화제가 끊이지않는 가수 엘비스·프레슬리의 레코드가 이에 버금갈것이라는 추측이다。

에디슨이 발명한 레코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것은 1세기전의 일로 알려진다。1880년께 대동강을 따라 올라온 프랑스신부가 평양감사에게「소리」를 들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留聲機、留音機、寫音機、蘇音機등으로도 불려졌던 蓄音機가 일반에 팔리기 시작한것은 20세기 들어서다。그리고 레코드에 취입한「청소리」는 朴春載、李東伯같은 당대 名唱들의 노래였다。

오늘의 대중가요인 유행가가 무대와 레코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린 때는 대체로 1920년대에 들어서였다。지금도「흘러간 노래」로 잊혀지지 않는 황성옛터가 나왔고 30년대에 와선 눈물젖은 두만강,목포의 눈물이 심금을 울리며 애창되었다。

나그네 설움은 레코드가 10만장 이상이 팔리는 놀라운 인기를 누렸다。이런 곡목들은 노래제목이 말해주듯 거의가 감상적이다。식민지시대의 울분과 사회상을 노래에 실어 공감을 일으킨것이다。

어느방송국에서 내놓은「한국가요조사」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눈물젖은 두만강과 나그네 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심정 깊이 뿌리 박은 복고와 향수감,그리고 恨의 감정을 읽을수 있을것 같다。이 조사결과는 대중가요의 생명력이 결코 일시적이거나 泡沫的 성격이 아님을 알려주기도 한다。외국의 팝송을 즐기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장년층에 이를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波、새聯政구성 拍車
共黨政治局、自由勞組포함등 확인

【바르샤바10日UPI=聯合】폴란드공산당정치국은 10일 자유노조를 포함시킨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야루젤스키당 제1서기의 전례없는 계획을 크게 고무시켰다。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이날 14인으로구성된 공산당정치국이『당과 노조협의,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善을위해 힘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부가 개방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는 현재 구성돼있는 민족통일전선을 자유노조가 포함된 새로운 세력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이 이끌고있는 이민족통일전선은 폴란드내의 모든 선거제도를 통괄하며 정부를 지휘하고있다。

波、勞動소요再燃

【바르샤바10日AP=聯合】폴란드정부가 국내사회·경제문제에관한 정부·노조간 회담을 위해 자유노조측이 제시한 6개항의 의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는가운데 10일 폴란드의 일부지역에서 노동소요가 재연될 새로운 조짐들이 나타나고있다。

한편 이날 업저버들은 오는13일께 시작될지모르는 정부 자유노조간 회담에서 가톨릭교회가 은밀히 중재역할을 맡을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다。

15개월전 자유노조탄생이후 1개 지역으로서는 최대의 파업을 벌여온 지엘로나·고라성의 노동자 15만여명은 성당국이 노조지부와 정부당국이 체결한 잠정협정의 승인을 거부하고 노조지부지도자들이 파업을 강행할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날 현재 새로운 협상가능성이 보이지않는 가운데 2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블로클라베크시의 택시운전사 3백80명은 휘발유구입의 우선권과 5ℓ가줄어든 하루 휘발유소비량의 원상회복을 관철시키기위해 11일하오부터 시내 중요간선도로를 봉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美·日、極東有事時대비論議
駐日美軍사령관 "日공항·港灣이용 期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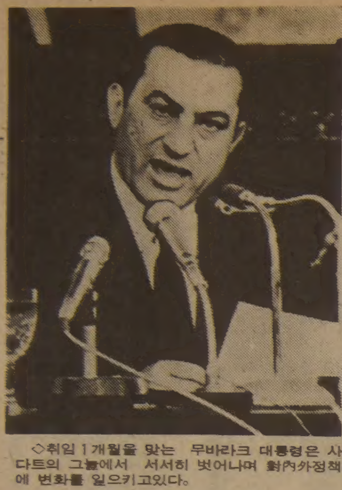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駐日미군사령관 찰즈·도넬리 공군중장은 10일하오 극동유사시를 대비한 연구가美日간에 검토되고있으며 내년1월 美日안보협의회가 열리기전에 구체적인 공동연구가 착수될것이라고 말했다。

도넬리 사령관은 극동유사시 즉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駐日미군은 일본의공항과 항만시설의 사용을 편의제공을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극동군증강에대비, 일본은 석유항로의 해상방위력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 백파이어機의 극동배치에 따라 미7함대가 위협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對內 유화、對外는 和解
埃무바라크 就任 1개월…「變數」엿보이고 있다

反對세력들과의 對話활발
回敎과격파에만 彈壓여전
「사다트그늘」벗어나 經濟상태 개선에도 努力



◇취임 1개월을 맞는 무바라크 대통령은 사다트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對內外정책에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오는14일로 취임1개월을 맞는 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조용하나 확고하게 국내외 반대세력과 화해의 가교를 놓고있다。사다트가 즉흥연설을 즐기던연단에 무바라크는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들고 나타나 국내반대세력에는 유화정책을,아랍세계와는 화해를모색하는 발언을하는등 사다트와는 대조적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7일에는 사다트암살범과 국가안보저해사범을 제외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바라크는 이에앞서 국내신문에 반대세력을 비판하는 보도를 금지시키고 야당지도자들을만나 협조를 약속하면서 『여론을 귀담아 듣고 건설적 비판과 소수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무바라크는 특히 야당세력중에서도 친공노선을 취하며 對이스라엘화평을 비판하는 좌파와도 화해를 모색해 주목을 끌고있다。무바라크는 취임후 사다트치하에 제일탄압을 받았던 좌파인 통일진보당의 보헤던당수및 사회노동당의 샤리크당수와 회담하고 지지를 얻어냈다。

무바라크는「세속정치」세력과는 화해를 추구하면서도 회교극단주의자에 대해서는 탄압을 계속하고있다。온건한 이슬람세력에 국한해서 발언권도주고 정부참여의 문호도 개방했다。잔존을 바라던 사다트와는 달리 무바라크는 종교세력의 參政을 배제하면서 회교과격파의 제거를 정치의 제1목표로 하고 있다。

사다트 피격사망후 한달사이에 체포된 회교과격파는 2천여명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무바라크는 지난2일 美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에서 『사다트를 암살한 회교과격분자는 오래전부터 준동해 왔다。사다트는 이들에게 행동할 시간을 너무많이 주었다』고 말했다。

무바라크의 회교 과격파탄압은 국내정치상황때문이다。70년 낫세르의서거로 대통령이된 사다트는 친소주의정적파의 대결이 급선무인반면 좌파의 위협이없는 무바라크에게는 회교과격파가 자신에게 으름가는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사다트가 이슬람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독실한회교도인반면 무바라크는 엄격한 합리주의를 요구하는 조종사출신으로 종교성이 희박한것도 원인이다。

사다트의 모습은 사라졌어도 그의 경제 자유화정책으로 초래된 빈부차와 악화된 경제도 무바라크가 청산해야할 유산이다。무바라크는『안정을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겠다』며『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권과 계급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바라크와 사다트는 정치스타일도 다르다。무바라크는 매일아침 8시 생기있는 얼굴로 집무를 시작하여 직선적이고 꼼꼼하게 자기가의도하는바를 상대편에게 알린다。즉흥적이고 극적효과를 좋아하는 사다트와는 달리 항상 모든것을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한다。

사다트는 결핏하면 대변인에 맡기지않고 자신이 직접 중요결정사항을 발표했으나 무바라크는 전 워싱턴주재공보관 모하메드·하키를 대변인에 임명했다。그는 또 자신의 가족을 기자가 접근하는것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대외정책면에서 무바라크는 전임자 사다트가 서명한 캠프데이비드협정 준수를 다짐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에 사우디의 평화안을 수락하라고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나오고있다。

지난10월14일 취임후 親美와 對이스라엘협조노선을 다짐했지만『아랍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협상하지않는다』는 소신의 한모서리를 드러낸것이다。

무바라크는 취임후 관영언론에 아랍내 적대국 비난을 중지시키고 자신의 중동평화구상을 설명하기위해 사우디등 아랍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등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소련과의 관계에서도『관계를 개선할 준비가되어있다』고 지난7일 쿠웨이트일간지와의 회견에서 말했다。무바라크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보낸 대통령취임축하와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전문에 응답을 보냈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서방관측통들은 무바라크가 정치기반을 다지기위해 시도하고있는 정책전환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목하면서 무바라크가 지금까지 보여준 조치로보아 사다트의 그늘을 벗어날능력이 있음을 실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바라크가 한편으로는 캠프데이비드협정에의한 팔레스타인 자치협상도 벌이고있으나 이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철수를 실현하기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철수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무바라크가 추구하는 대외노선의 참모습은 아무래도 시나이반도를 완전히 넘겨받는 명년4월이후에나 분명하게 드러날것 같다。【申相禎 기자】

페灣 頂上會談 개막
6國代表, 리야드서 2日間

【리야드10日UPI=聯合】페르시아만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군사적협력을 목적으로 지난5월 창설된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GCC) 6개회원국정상들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개막。▲페르시아만지역의 유전보호를위한 통합군사기구 창설 ▲사우디가 제시한 8개항의 중동평화안 ▲동구권국가들과의 외교관계수립가능성등 역내 외교관계심사에관한토의에 들어갔다。

사우디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등 GCC회원국 정상들은 이번정상회담에서 사우디의 중동평화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GCC정상회담에는 알·아메드·아스·사바 쿠웨이트대통령, 카부스 오만대통령, 안·나얀 아랍에미리트 연합대통령, 할리파 바레인 대통령, 하마드·알·차니 카타르 대통령, 할리드 사우디 국왕등 6개국정상이 참석하고있다。

臺灣보안기관顧問 中共망명

【北京·臺北10日UPI=聯合】중공은 10일 자유중국최고보안기관인 대만수비대고문인 교수출신의 마비(70)가 중공의 대만통일공작을 돕기위해 중공에 망명했다고 발표했다。

하룻새에 60전올라
美貨1弗 6백88원

지난 8월이후 美貨1달러당 6백87원선에서 거의고정돼있던외환시세가11일하루만에 60전이 올라처음으로 6백88원선을 넘어섬으로써 3개월만에다시 유동화되었다。韓銀에 따르면 對美환율은 韓銀집중율기준으로 6백88원30전으로 10일의 6백87원70전에비해 0.09% 지난연말의 6백39원90전에 비해 4.3%가 올랐다。

◇自由自在 휠체어

하반신 불구의 신체장애자가 이발을 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는 타고있는 휠·체어에서 내려 옮겨져야하는 불편한 경우가 많다。그러나 영국에서 새로 발명된 언바·레트로라는 새로운 이 휠·체어는 원하는 어느 각도로든지 뒤로 기울일수 있다。【LPS=聯合】

◇誤報낸 콜럼비아號 발사

지난4일 8시(현지시간)의 콜럼비아호 발사예정시간보다 15분전에 인쇄를 끝내야했던 美디트로이트·뉴스지가 성공을 확신하고 미리써서넣은 기사가 중대한 誤報가됐다。「콜럼비아호 다시 壯途에」라는 제목이 너무 커보인다。【뉴스위크】

海外토픽

부르크·쉴즈 敗訴
★10살때누드사진 訴訟서

뉴욕지방법원은 10일 부르크·쉴즈양이 사진사 개리·그로스를 상대로 제출한『10살때의 자신의 누드사진을 더이상 광고용으로 사용치 말아줄것을 요구하는』소송을 기각。

뉴욕지방법원의 에드워드·J·그린필드판사는 이날 사진사 개리·그로스가 부르크·쉴즈양의 누드사진을 정당한 목적에 계속 사용할수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히면서『그러나 포르노잡지에는 더이상쉴즈양 사진누드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판시。

소송을 제기한 쉴즈양과 그녀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쉴즈양의 10살적 누드사진은 슈거앤드·스파이스란는 타이틀의 플레이보이社의 간행물에 한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됐던것이라고 계속주장했다。【뉴욕=AP】

美노인들 杜門不出
★4명중3명·봉변당할까봐

미국노인 4명중 3명이외출했다가 범죄자들의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집에있기를 원하고있다고 미국의 한 보고서가 발표。

연방정부자금으로 실시된 이연구보고서는 도시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미국의 2개도시에 거주하는 9백명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결과 응답자중3분의2이상이 바깥출입을 하면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것。

특히 응답노인중 절반이상은 길에나가면 노상강도를 당하는것으로 알고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첨언。【워싱턴=UPI】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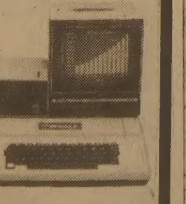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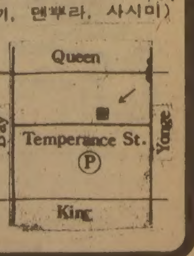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英語 早期敎育 바람직한가

리젠트·코리아 社「理論과 實際」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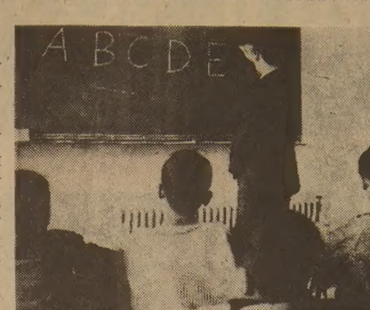
영어의 早期교육은 바람직한 것일까. 만일 早期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의 실시연령은 어느 때쯤일까. 지난 10월13일 문교부의 영어 早期교육실시 발표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의 早期교육문제는 그 이론과 실제면에서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贊·反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영어교육회와 외국어교재출판사 리젠트·코리아社는 12일 하오1시 미국문화원 강당에서 「영어早期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심포지엄에 앞서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해본다.

正確한 發音習得엔 큰 성과

「외국어학습의 결정적시기」에대해 강연한 崔容救교수(東國大)는『조기교육은 외국어의 發音에 매우 성과가 높지만 發音만으로 외국어를 배울수있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어학습의 결정적 시기를처음 거론한사람은 레네버그인데 失語症환자의 회복과 언어기능이 뇌의 한편에 집중하는 시기를 착착하여 모국어(외국어가 아닌)습득이 가능한시기를 14세이전으로 보았다. 따라서 14세가 넘은후 비로소 인간이언어를 배우려고하면 불가능하단는 것이다. 이 이론은 人間世界와 단절된 채 성장했던 버림받은 어린이의 경우로 입증된것이다.

외국어를 10세이전에 배우기 시작하면 발음이 정확해질수 있으나 11~14세에 시작하면 조금서투르게되고 14세가 넘어서 시작하면 발음학습이 아주 어려워진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10세이전에 시작하면 발음이 정확하다는 것이지 외국어 자체가 정확하다는것은 아니다.



◇외국어의 조기교육은 정확한 發音을 배우는데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文法·文章力은 10代후반 효과적

나이보다 文化·社會的이해와 함께 學習시켜야

敎師·施設확보·敎材구비도 문제

섭리거는 14세이전에 결정적으로 이어이되는것은 발음뿐이고 정작 중요한 문법조작과 문장력은 10대후반에 더잘 배운다고 말한다.

더구나 외국어를 배우는능력은 일생동안 계속된다. 그 증거로 우리는 발음은 나쁘지만 훌륭하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수있다.

외국어학습은 의식적학습과 무의식적習득이 있는데 습득에 의해서만 유창하게된다고한다.

무의식적 習득은 아는 지식의 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일것은 슈먼의 문화지식 이론이다.

슈먼에 따르면 외국어학습자가 그 외국어가 대표하는 문화에 얼마나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외국어의 섭취가 결정된다고 한다. 문화이식은 처음에는 흥분과 신기함을겪고 다음에는 심한 문화적 충격을 받으며 드디어 자기문화와 외국문화 사이에서 혼돈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회복기에 들어가게된다.

어떤 이론에서 좀 더 변형된 발전한것이 브라운의 사회문화이론이다. 브라운은 외국어 능력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조화를 이룬다면 나이와는상관없이 언제건외국어를 잘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몇가지이론을 종합해보면 외국어습득의 허용시기를 나이에 맞추려할것이 아니라 비록 발음은 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사회적 이해와 함께 학습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 외국어가 대표하는 문화속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외국어의 조기교육 반대론」을편 朴南植교수(서울대·응용언어학)는『외국어는 어려서 배울수록 그것을 더 잘 구사할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해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기만하면 누구나 영어를 잘하게 되리라는것은 지나친 착각』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조기외국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학습자들이 목표외국어에 대한 절대적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교육이 성공하기 어렵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외국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이 결여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성공을기대하기란 지극히어려운것이다.

외국어교육의 성공이 연령 한가지 요인에 의해 성패가 결정나는것은 아니므로 조기교육만이 전부가아니고 기타 여러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선 유능한 교사, 훌륭한 시설및 교재등을 충분히 갖추어야하는데 교사를 양성하기위해서는 필요한 교수진을 확보하는데 10여년이 걸리고 그로부터 4, 5년후에 교사가 배출될 것이며 그로부터 또 4, 5년이 지나야 충분한 숫자가 확보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후에나 충분한 숫자의 교사가 확보될수 있다.

양질의 교재, 훌륭한 시설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추리력이나 분석력이 약해서 복잡하고 난해한 표현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는 약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더 짧은 시일안에 외국어를 익힐수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는 외국어보다도 국어교육에 더역점을 두어야 초기 교육의 전통적인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⑱⑨

陸聯會長 시절

54年부터 8년간…不毛 陸上개척 노력

選手문제로 鐵瓮城 景武臺 가보기도

50~52년에 이어 54~56년의 기간은 나에겐 사회활동履歷이 무기로 불어난 시기였다. 50년초 사회활동이 정치, 외교, 언론에 치중된 것이었다면 50년중반이후의 사회활동은 체육과 교육분야였다.

체육계활동중에선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지낸것이 가장 보람있었던 것같다.

나는54년에서 61년까지 8년간육상연맹회장을 맡아보면서 육상의진흥을위해 내딴에는 제법 뛰어다녔다. 당시 육상선수의 해외파견문제로 鐵瓮城같던 景武臺에도 한번 들어가봤다.

그당시 육상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육상의 底邊인구도 희박한데다 선수육성방안이란 거의 全無한 상태였다. 트랙이고 필드고간에 육상의 발전은 곧 스포츠전반의 발전과 직결된다. 육상인구가 많고 선수육성책이 바루서면 나라의 스포츠는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근본이자 母體다.

나는 어느 스포츠간에 선수들은 육상의 技를 튼튼히 익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육상은 지금도 經視당하는것 같다. 아직도 육상은 배고픈 운동이란 인식이 깊이 배어있는 모양이다. 이 인식을 탈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육상을 존중하고 육상을 익혀야한다.

지금보면 국민학교 중학교때부터 어린학생들이 육상의 바탕없이 화려하게 보이는 인기스포츠에만 매달리는 성향이 높은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기스포츠에만 매달리다 나오하면 그선수는 그만 매장되고만다. 이나이에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치지만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골프채를 메고 다니는것을 보면 기분이 매우 언짢다. 사람들은 일찌기 세계를 제패한 우리의 마라톤이 왜 오늘날 이모양이냐고 한탄하지만 어찌보면 그건 당연한 결과다. 스포츠의 구조와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먼저 알아야한다.

야구하면 난 위대한 육상의 天才 金成鳳선배를 잊을수 없다. 中央학교와 早稻田大 2년선배인 金씨는日帝때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제일가는육상선수로 늘 육상진흥을 외쳤던 인물이다.

내딴에는 운동을 좀 많이 했다는 인연으로 나는 야구협회고문과 唐手道靑濤館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학창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했었기 때문에 야구에 유달리 정이 깊었다. 야구협회는 日帝때 나와함께 야구심판협회를 만들었던 李源容과 같이 조직했다.

56년엔 張基榮, 월터·鄭, 李相栢씨등과 함께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이 돼 활동을 하기도 했다. 월터·鄭은 지금도 스포츠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있으니 여간 고맙지가 않다.

나의 활동중 또 큰 보람이 있었던것은 대학에서의 오랜 강의였다. 中央大, 政治大(現建國大)등에서 국제법과 외교학을 가르쳤는데 中央大엔 任永信총장의 초청으로 강의를 맡아 몇년전에 그만두기까지 25년가까이 계속했다. 建國大에선 10년가까이 강의를 했다. 또 朝鮮大등 지방대학의 초청강연에도 많이 나갔는데 대학의 초청강의라면 웬만큼 바쁜 일을 젖혀놓고 응했다. 내가 배운것을 젊은 後進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싶은 욕심에서였다. 대학강의에선 고등고시위원을 지낸때의 경험을 살려 時事的인 응용력을 키울것을 늘 강조했다.

◇4·19가 나기한해전인 59년가을筆者는 서울貞洞교회에서 李承晩대통령과 對面했다. 앞줄 李대통령내외와 매그루더 유엔軍사령관내외. 뒷줄 왼쪽에서 4번째가 宋堯讚육군참모총장, 李康石군, 두사람건너筆者.

나는 50년 제1차고등고시 出題위원이 돼 李恩昌과 국제법외교사는 白樂濬박사와 같이 출제를했다. 그때 느낀 것이 학생들이 너무 교과서식의 답안을 쓰고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밖에 내가 간여했던 직책으로는 中央校友會長, 대한여행사고문, 서울시養老대책위고문, 安重根의사銅像建立委와 李儁선생동상건립위고문, 펜싱협회장등이 있다.

현재도 나는 安重根의사崇慕會이사로 있지만 당시 安義士의 동상건립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있다. 나는 높은 인격과 철학, 해박한 지식을 겸비했던 선구자 安義士를 李舜臣장군과 더불어 가장 존경한다.

履歷을 줄줄이 늘어놓다보니 어쩔수 없이 또 자랑이 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하면 反省이 앞선다. 심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내 부족한 인격으로 외람되게 建國전후를 통해 막중한 자리를 더럽혔다는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 나로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죄인이 되지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인간이 하는일인지라 실수도 많았고 愚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한다.

初代내각과 국회에서의 활동중엔 반대파로부터 정치적비판도 받았고 모함도 받았다. 그중엔 내자신 아는것도 있었고 내 스스로 모르는일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다만 私利私慾을 탐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얘기할수 있다는 입장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死後의 生 確信이 굳어지고 있다

—獨 月刊誌「다스·베스테」11月號 特輯에서

死後의 生이 과연 존재하는가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테마의 하나다. 최근 발간된 獨逸의 月刊「다스·베스테」誌 11월호는 死後의 生에 대한「경험」들을 모으고, 死後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엮은「死後의 生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고있다」란 특집기사를 게재, 흥미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다스·베스테」紙의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버지니어·펠레스라는 한부인은 별로 위험하지도않은편도선 수술을 받는도중 갑자기 심장이 멎는 사고가 있었다. 그 순간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갑자기 나는 하얀 안개속으로 위를 향하여 흔들리듯이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주 따뜻한 빛속에서 참으로 기묘하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속에서 아주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빛이 바로 하느님이라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순간 내게는 두아이가 있고 그들에대한 책임이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돌아가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편도선手術중 心臟정지된 女人>

"하얀안개속으로 떠올라가 따뜻한 빛속에서 平和만끽 두아들생각 이승으로生還"

펠레스부인의 이같은 경험담은 실상 전혀 새로운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이런 경험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런「경험」은 과학적인 연구대상이 되지못했고,「말들만할것」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같은 경험은 심장마사지나 약물투사등의 자극적인 쇼크에의한 환각일 경우가 많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학자들은 그같은 경험을 겪었다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있다.

최근 많은科學者·醫學者들 경험자찾아 硏究집중

레이먼드·무디박사는「死後의生」이란 책을 펴내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무디박사는 이들 경험자들이 대체로 선명하게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는점을밝힌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평소에 잠재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던 세계를 잠깐 맛보는 일종의 소원透影의 결과일수도 있고, 짧은 괴상한 에피소드로서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초지각적인 인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디박사는『그들의 경험은 그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 다시 삶을 찾은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한 전환점이 되었다는것은 거의 확실한것같다』고 말한다.

미국 코네티컷주립대학 심리학교수인 케네드·링씨는 무디박사와 기타 학자들의저서및연구보고를 읽은후『경험자들 가운데 많은 수는 약물이나 자극 쇼크등의 매개체가 사용되지않은 상황에서 경험한 것이므로 매개체의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체험이었다고 믿어진다』고 그들의 死後 체험의 진실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링교수는『약물이나 환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깨고나서 이러한 경험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고 또한 환각에의한 경험은 이야기의 체계가 없는데 비해 그들의 경험은 인상적이며, 그들은 한결같이 그경험에대해「사랑의 절대자」가 앞에 있다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꼈으며, 그행복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있다』고 경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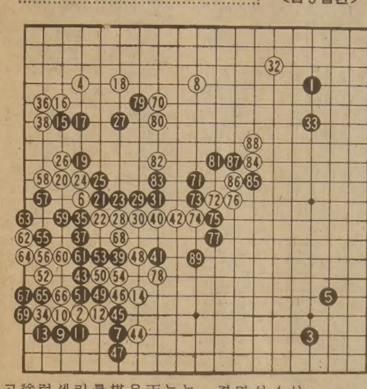
무디박사는『현재 많은 학자들이 死後世界에대해 수긍을 하더라도 아직 이 문제는 출발점에 서있는 상태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스스로 경험을 내려야한다. 이같은 경험과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은 자신의 삶에 반영시키는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책펴내고 死後世界에 긍정적發言

지난 20년간 死後의 生에 대해 연구해온 버지니아대학의 정신의학교수 아이언·스티븐슨박사는『최근, 적지않은수의 자연과학자나 의학자들이 死後의 生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나는 이러한 장래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슬기롭게 사는 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믿는다』고 편하고 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總譜 89手完 黑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哲民〈3敗〉
黑(5段)張秀英〈3勝〉

이로써 張5단은 연3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그뒤를 2승의 姜勳4단이 바짝 좇고 徐奉洙7단이 1승. 성급한 예상일지 모르겠으나 이들 3명의 無敗者중에서 올해의 도전자가 결정되지 않나 여겨진다.

張5단은 아직 그의棋風이 어떻다는 말을 듣지않고있다. 생각에따라서는 이렇다할 능기가 없는―이를테면 玉의 原石처럼 보이지만 張5단본인은 국이 하나의 능기만을 일삼지않고 棋理가 가리키는대로 전반적인 기예를 열심히, 부지런히 갈고닦는 棋士라할까. 이점『전문기사라면 심리와 세력, 공격과 수비 어느면에서나 밸런스가 잡힌 실력을 가져야 한다』는 徐奉洙7단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고있는가싶다.

張5段 단독先頭

바둑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면에서도 진지하고 충실한 때문인지 張5단은 요즘 지도사범을 맡아보는 한국기원 영등포지원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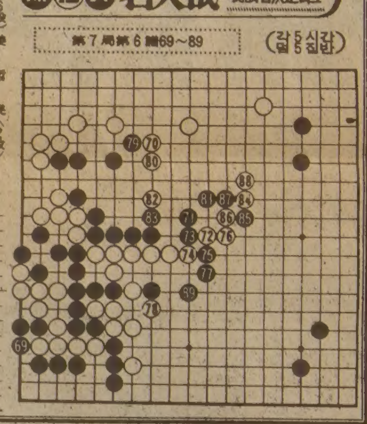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은 군자 보기드문 短命局이었다.

문제는 좌상귀를 확보하려는 白36이 수로 좌변을 黑37자리에 붙잡아서 무난했는데 순간 黑37을 허락하자 양상이 심상치않게 되었다.

그뒤 白40은 직접48에 붙여야 좌변白이 수습되어 장기전을 벌일수 있었다. 黑41이하 47로 사세가 급해졌을때 48에 끼우는 승부수를 던져서 혼전이 발발했지만 최후의 패착은 白62. 이수로 65자리를 이었더라면「빅」이 되어 불리한대로 계속 두어볼만 했는데 62, 64가 자충수처럼 되어 黑69까지 白대마가 전멸해서 바둑은 끝난셈이었다. 【一九】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第6譜69~8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哲民〈2敗〉
黑(5段)張秀英〈2勝〉

黑69까지로 좌하쪽 白대마를 나포한데서 바둑은 끝났것과 다름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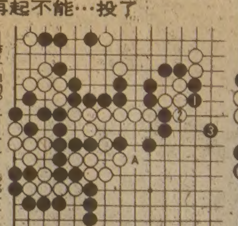
현재 이곳만 해도 전체 白집을 능가할 것 같은데 게다가 우측 上下에 견고한 黑진이 있다. 오직 중앙 黑일단이 공중에 떠있지만 이것도 공격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白을 압도하는 꼴이다.

姜6단은 그 중앙 黑에 白70으로위협을 가함겸 상변을 확보했다. 이수는 71쪽에서 위협하면 어쨌느냐는의견도 있었지만 黑이 71에서 73, 75로 나와 끊어 다시금 급전의 양상이다.

棋諺에서는「我衆彼寡면 可張其勢」라 말해서 적보다 내가 강하면 세력을 펴라고 말하거니와 이때 黑의 작전이 바로 그런 식이다.

白78은 급소. 이곳을 黑에게 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黑79때 순순히 마지않고 白80. 그리고 다시 82로 안간힘으로 중앙黑에 갈길바쁘에 없다. 먼길꽃을 찾기라도 하듯이 강경책을 쓰다가 白88로 뻗었을때 黑89의 결정타를 맞고는 미련 기권을 않고 姜6단은 돌을 거두었다. 89 다음 黑은 참고도 1, 3의 젖힘과 黑「A」의 호구등을 맞보게되니 도저히 견딜노릇이 아니다. 【一九】

白、再起不能…投了



모눈종이위의 生 〈251〉

趙善作 金光培畵

모눈종이위의生 ⑱

한일민씨의 부인이 현관도어를 열어 주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부인이 반갑게 말했고, 군자가 나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제친군데요, 우리 집에 놀러왔길래 함께 왔어요. 애기 아빠 팬이래요』

『처음 뵙겠어요』

라고 말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고, 그녀는 내 손에 든 청과류 바구니를 보고 놀라며

『아니 이런 걸 왜?』

하고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현관 안쪽은 자그마한 응접실이었다. 소파가 기역자로 놓여 있고, 맞은편 진열대는 텔리비전 수상기 한 대와 그의 저서로 보이는 책이 몇권 꽂혀 있을 뿐이었다. 소파 뒤쪽 벽면에는 그림이 두점 붙어 있었는데 두 점이 한 쌍을 이루는 듯한 추상화였다. 그밖에는 살림살이가 너무 간소하고 심겁게 보였으며, 언제든지 짐을 싣고 이사한다고 하더라도 작은트럭으로 한대 분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소파에 앉았다. 부인은 잠시주방쪽에 있다가 날렵한 솜씨로 코피와 과일을 내왔다.

『사는 게 우습죠?』라고 그녀는 군자와 나를 번갈아 보고 말했다. 『실망하실까봐 조마조마해요』

『그렇잖아도 얘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는 길이에요』

군자가 말했고, 한민일씨의 부인이 군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뭐랄까, 작가분의 생활이랄까요? 어떤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기도 한데…』

『아, 네. 저희들은 이것도 기를 쓰고 있는 형편이죠』

그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싶지않은 눈치였다. 그것을 눈치챈 군자가 입을 다물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애는 어디 갔니?』라고 군자네 집 아래 층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네가 온다고 해서 일하는 애하고 내보냈어. 그애가 있으면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 이야기나 할수 었니?』

『왜요? 말썽 꾸러기 인가요?』군자가 다시 끼어들었고, 한민일씨의 부인 대신 그녀의 친구가 대답했다.

『내석 말도 못해요. 아무나, 어른이고 아이고 할것 없이 그애 옆에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해요. 애가 터무니없이 공격적이어서 말예요. 어느 틈엔가 달려들어 뺨을 한 차례씩 갈기고 도망치는 거예요』

한민일씨의 부인은 잔잔히 웃고만 있었다. 군자가 부인의 친구에게 물었다.

『피해자이신가봐?』

『그럼요. 우리 집 꼬마도 피해자고…… 누굴 닮아서 그러니? 뇌 아빠지?』

『그럴대』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꼭 그랬대』

방안에 잠깐 웃음이 번졌다.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얼마 동안 비슷한 잡담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들의 잡담에 몰입 되지는 않았고, 내 상념(想念)을 좇는 일에 더 급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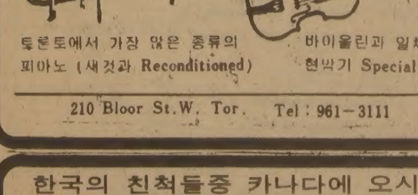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의 가정을 보아두겠다는 내 생각과 그의 가정이 내게 보여준 것 사이에 끼여 나는 막연히 유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때로는 너무 엉뚱한 곳에, 우연한 장소에 와 있다는 깨우침이 문득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따금씩 군자는 그런 내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러나 나는 군자가 염려했던대로 실수는 하지 않았다.

화제가 또 바뀌었다. 군자네 아래층 부인이『뇌. 아빠 여행 가셨다며? 언제 오시니?』하고 물었고, 한민일씨의 부인은『글쎄, 오셔도 또 가실텐데 뭐』하고 대답했다. 거기까지는 나도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무심코들었는데 군자네 아래층 부인이 또『그렇게 밖으로만 돌아도 넌 불안하지 않니?』하고물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한인업체를 도웁시다!

많은 한인업체들은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영면에 부딪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굳게 모아진 힘으로
한인업체를 키웁시다.

한인업체의 경제적 발전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애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경북 首位유지

最難코스 新洞고개서 熱戰

京畿 5분53초차로 2위

서울팀은 柳文鍾 역주 3위

27회 釜山·서울大馹伝경주

【京釜大驛傳取材班】 3일째를 맞은 제27회 釜山-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는 11일 大邱-金泉간(64.9㎞) 제3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쳐 慶北은 3시간20분03초로 선두로 골인, 계속 1위를 마크하고있다. 慶北은 釜山-金泉간(2백23.1㎞) 종합기록에서도 11시간7분41초로 2위 京畿를 5분53초차로 누르고 선두를 지켰다. 이날 레이스에서 京畿는 3시간21분02초로 2위, 서울은 3시간21분59초로 3위, 慶南은 3시간26분24초로 4위, 釜山은 3시간28분10초로 5위, 全南은 3시간30분20초로 6위를 각각 마크했다.

종합기록에서는 京畿가 11시간13분34초로 2위, 서울이 11시간16분34초로 3위를 달리고있다.

이날 레이스는 상오10시金聖培경북도지사의 출발신호와 함께 6개시도 건각들이 大邱시민회관앞을 박차고 나섬으로써 열전에 들어갔다.

제3구간 레이스의 하이라이트는 제1소구 大邱-新洞간에서 1만m 한국기록보유자 朴京德(경기)과 5천m 한국기록보유자인朴元根(경북)의 대결이었다.

첫소구서 라이벌인 朴元根과 朴京德은 추보도 양보하지않고 해발6백m의 新洞고개를 향해달렸다. 3일째까지 매구간 첫주자로등장했던 朴元根은 이날첫소구 新洞고개 오르막길에 접어들면서 스퍼트, 朴京德을 따돌리고 힘차게 달렸다. 朴京德은 제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스피드가달려 결국 朴元根에게 1분05초 뒤졌다.

제2소구에서는 慶北의 鄭晩和가 호조를 보였으나 제3소구에서 京畿의 黃寅哲이 맹렬히 추격, 慶北과의 거리를 1분02초차로 좁힌후 제4소구에서는 兪貞濬의 맹활약으로 13초차로 좁혔다. 慶北은 이고비에서 崔慶烈이 분투, 京畿의 추격을 따돌리고 소구신인 崔東浩가 마지막 소구에서 분전, 계속 선두를 고수했다. 서울은 제1소구에서 全南에 뒤져 4위를 달렸으나 제2소구에서 柳文鍾이 全南을 따돌려 3위로 나서고 李洪烈 沈鉉澤의 분투로 金泉에 3위로 골인했다.

3일째까지의 레이스결과를 보면 慶北·京畿·서울이 치열한 3파전을, 釜山과 全南이 하위탈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2위 京畿와 3위 서울과의 기록차는 3분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慶南의기록차는 14분52초나된다. 1위 慶北과 6위 全南과의 기록차는 35분이다.

킹스컵축구大會 泰國B에 1-0

【방콕=KBS중계】 한국忠義는 10일 泰國방콕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 B조예선 1차전에서 泰國B팀을 1-0으로 꺾고 1승을 올렸다.

忠義는 후반37분 崔昌壽의 도움을받은 河德潤의 헤딩슛으로 천금의결승골을따냈다.

이에앞서 열린 같은B조의 北韓-濠洲의 경기는 득점없이 0-0무승부로 끝났다.

전날A조경기에서泰國A팀이 싱가포르를2-1로꺾었다.

忠義는 12일하오7시(한국시간) 폴란드와, 14일하오 7시 北韓과 대결한다.

北韓, 濠洲와 비겨

◆…작년 9월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2-1로 역전패한후 아시아무대에 얼굴을내밀지않았던 北韓축구가 이번 킹스컵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대회에출전한北韓팀은平壤선발이란 명칭을 달았으나 선수대부분이 작년 대표선수들이다.

北韓은 忠義-泰國B조 경기에 앞서 濠洲단일팀과 첫경기를 가졌는데 날카로운맛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2일전적

▲B조

한국 충의 1 (1-0 0-0) 0 태국 B팀
(1승)　(1패)

호주 0 (0-0) 0 북한
(1무)　(1무)

한국팀 3連敗 월드컵 女子排球

【東京支社】 제3회월드컵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 여자대표팀은 10일 日本홋카이도·에베스(江別)시엔체육관에서 벌어진 3차전서 中共에 3-0으로 패배, 3연패를 기록했다.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賊 <23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㉚

이 무렵 하석(河錫)이 안성으로 홍계남을 찾아왔다. 하석은 영남 출신으로 율곡팔현(栗谷八賢)을 흉내며 계남과 같이 어울렸던 패남아이다.

『홍형이 보고 싶어 불원천리 왔소이다』

하는 하석을 계남은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데 하석의 [illegible] 호방하고 활달한 기색이 없고 침울하기만 했다.

『하공, 우리가 만나 이렇게 기쁜데 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소. 어이된 일이오』

계남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픈 산천(山川)과 슬픈 민심(民心)을 건너와서 그러하오』

하석의 말이라서 그 까닭을 알고자 했더니 그가 말하길

『이번 올라올 땐 전라도로 해서 왔는데 전라도는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소. 여립이 반역했다고 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소. 여립의 친척이라고 하면 계촌(計寸)을 못할 먼 친척까지 찾아내어 곤장을 때려 죽이고, 그 처족(妻族) 또한 그러하고, 여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붙들어다 고문을 하는 판이니. 글쎄 그게 무슨 꼴이란 말이요. 누가 그의 역심(逆心)을 알았겠소. 그의 역심을 알고 동조한 자들은 이미 붙들어 죽였는데, 길가다가 만나 인사를 극진히 하더라, 문안 편지가 정중하더라 하는 등등의 일을 캐내어, 캐낼뿐 아니라, 만들어서까지 가혹하게 추궁하니 어느 나라의 법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전라도사(全羅都事) 조대중(曺大中)의 얘기는 홍공도 들었겠지』

『대강은 들었지』

『그런데 여립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것도 생판 거짓말인데 또 억울한 꼴을 당했다고 하는거요』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조대중이 옥중에서 지하약종비간거(地下若從比干去)하면 고혼함소불수비(孤魂含笑不須悲)라라는 시를 지었다오. 비간(比干)이란 충언(忠言)을 한다고해서 주왕(紂王)이 간을 쪼개 죽인사람이다.

『그래서?』

계남이 하석의 얘기를 재촉했다.

『최황이 임금에게 그사실을 알린거라. 그랬더니 임금이 대노하여 특명을 내려 조대중의 처첩(妻妾)과 자녀, 동생, 조카들까지 몰살하라고 했다는 구먼』

『흐응』

하고 계남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잔인한 옥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혹독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또한 압슬형(壓膝刑)이라고 하니』

하고 하석이 얼굴빛을 흐렸다. 압슬형이란 무릎을 눌러 부수어 죽이는 형벌이다. 죄가 있는 여립에게 가한다면 모르되, 남편의 시가 탐탁치 않다고 해서 그 아내가 받을 형벌은 아닌 것이다.

『하공, 그런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소. 우리 술이나 마십시다』

하고 계남이 이제막 들어온 술상을 당겨놓고 대배(大杯)에 술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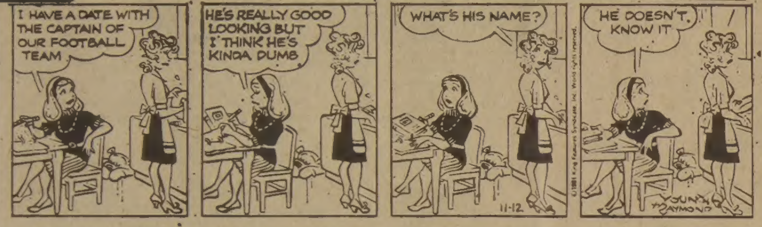
『홍공, 도무지 살 맛이 나지 않구료』

『언젠 우리가 살 맛을 찾아가며 살았소 어디』

계남은 상심한 친구를 위로하느라고 부러 웃음소리를 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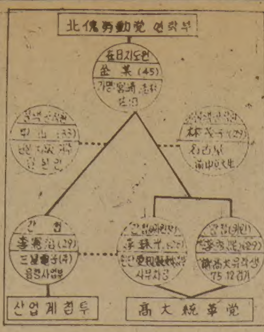


"우리학교 축구팀 주장과 데이트를 할거예요"　"걔는 정말 멋지게 생겼지만 좀 멍청한것 같아요"　"이름이 뭔데?"　"걔는 제이름도 모른다니까요"

產業界·學園침투 간첩 2명拘束

保安司검거 勞使분규·데모 선동등 획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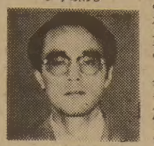
관련자20명 訓放…北傀서 밀봉교육도



국군보안사령부는 11일 북괴의 지령을받고 전자기술자와 모국유학생을 가장, 산업계와 학원에 각각 침투해 주요산업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대학가에 통혁당을 결성, 대학생들에게 좌경의식을 고취하고 데모선동등으로 국가전복을 기도한 재일교포2세등 고정간첩 2명을 적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구속된 간첩은 재일교포2세인 李憲治(29·水原시芭長洞212의45·三星전자음향품질과사원)와 李珠光(28·민단愛知縣東中지부사무차장·高麗大3년휴학)등 2개망으로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로부터 23종 28점의 증거품을 압수했으며 두 고정간첩과 연루돼 조사중인 20명은 사안이 경미해 훈계방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李珠光



◇李憲治

보안사에 의하면 재일교포 2세인 李는 지난74년 日本대학 1년재학중 조총련 재일지도원인 金모(45·일명 宮崎)에게 포섭돼 74년12월 10일 日本兵庫縣 해안에서 북괴공작선으로 입북, 平壤에 가서 20여일간 밀봉교육을받고 북괴노동당에 입당, 다시 日本에 돌아왔다.

李는 日本에서 金으로부터 『기술자로 위장, 한국산업계에 침투해 지하망을 구축해서 노동운동을 학생들의반정부운동과 결합시켜 근로자가 혁명주체가 되게 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77년 日本뉴호프상업의 한국지사 직원으로 국내에 위장입국, 간첩활동을 해왔다.

李는 이회사에 근무하면서 한국수출제4공단업체현황과 규모, 노사관계등 산업정보와 공단내 예비군훈련상황, 육군공수부대의 위치및 훈련상황등 군사정보를 수집, 金에게 보고했다.

李는 79년8월초 三星전자공업에 입사, 이회사의 종업원수, 수출실적등과 10·26사태이후 국내생산업체 경영실태등을 보고하고 三星전자와 瑞音전자내에 통혁당을 결성하기위해 동료사원들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해오다 검거됐다.

또 日本 中京大 영문과1년 재학중 재일공작원 金모에게 포섭돼 사상교양을받은 李珠光은 金으로부터 『유학생을 가장, 남한에 침투해반정부성향의 대학생을 포섭하고 한국의 정치, 사회, 군사기밀등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라』는 지령을받고 73년3월 모국유학생으로 입국, 74년 高麗大 영문과2년에 편입학했다.

李는 그후2년9개월동안 공작금 35만엔을 받아 주로 반정부성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日本 매스컴을 인용해 북괴 찬양선전을 하고 좌경의식화성향고무와 데모선동등의 활동을 했다.

75년8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 日本에가 당시 高麗大영문과 학생이었던 李秀熙(75년12월 간첩으로피검)와 지도원 1명등과함께「고려대통일혁명당」을 결성, 위원장직을 맡고 다시 국내에 돌아와 조직확산을 기도하기도했다.

李는 75년12월 간첩李秀熙가 검거되자 日本으로 달아났다가 79년6월 민단愛知縣東中지부 사무차장이 됐으며 지난10월 재일지도원 金의지령에따라 고정간첩 李憲治에게 지령문을 전달하기위해 재입국했다가 검거됐다.

僑胞방문확대 편승 기술자·留學生위장

〔해설〕 국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산업체와 학원침투 재일동포 2세 간첩들의 검거로 북괴가 우리정부의 대담한 개방정책과 교포방문 확대시책에 편승, 간첩들을 전자기술자와 교포유학생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침투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새로이 드러났다.

북괴는 이들이 국내에 잠입, 수집한 산업정보, 군사정보등을 과거의 무전보고등의 형태를 탈피해 자유로운왕래여건을 활용, 직접보고를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장기간지하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가정환경이불우한 국내여성과 결혼, 경제적지원을 함으로써 신분노출을막고 이들가족의 포섭도시도하는 대남전술도 보이고있어 다시한번 북괴의간악성을입증했다.

혹시 서양인의 체형(体型)에 맞춰 만든 모피제품을 구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1 BLACK GLAMA MINK LONG COAT : 검은 밍크로서는 세계 제일로 손꼽히는 밍크코트. 일반 시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코트. 스킨 한장한장마다 Black Glama라는 마크가 찍혀 있음.

2 MAJESTIC DARK MINK JACKET : Black Glama와 쌍벽을 이루는 밍크. 제품 안쪽에 반드시 CANADA MAJESTIC MINK라는 상표가 붙음. 이외에 Majestic Pastel Mink(옅은 밤색) Majestic Demi Buff(짙은 밤색) Majestic Sapphire Mink(잿빛) 등이 있음.

3 DEMI BUFF MINK STOLE : 역시 Majestic밍크로 스토울중에서는 최고급품.

4 밍크목도리(목도리 외에도 코트깃에 다는 여우 종류의 칼라가 있읍니다)

5 CANADIAN RED FOX JACKET : 여우 종류의 제품은 칼라맷칭이 가장 중요. 양산(量産)하는 곳의 제품은 칼라매칭이 눈에 띄게 떨어짐.

캐나다, 특히 토론토와 몬트리얼에는 수많은 모피공장, 스토어가 있읍니다.

거의가 서양인의 몸에 맞게 디자인한 패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한국여성에게 맞을수는 없읍니다. 제품 100% 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당 공장은 오로지 동양여성 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COLLAR MATCHING+CUTTING+SEWING입니다.

8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6 BLUE FOX JACKET : 역시 Red Fox와 마찬가지로 제조상어려운 것은 칼라맷칭. 특히 검은 빛을 띄우는 부분과 흰빛을 띄우는 부분의 맷칭이 뛰어난 기술을 요함.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정승규

※블랙 그라마(Black Glama)미국 오대호 주변의 밍크양식업자가 생산하는 Dark Mink중에서 최고급의 것을 Great Lakes Mink Association에 제출하여 Black Glam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음. Dark Mink로서는 세계 제일로 군림함.

1

2

CANADA Majestic MINK REG'D*

※마제스틱(MAJESTIC) = 캐나다에서 산출되는 최고급 밍크.

3

4

5

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 : (B)532－6143
(R)532－9638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임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연령 관계없이 애들을 돌봅니다.
삼복식품옆 핀치지역
☎ : 745－4521 (미세스. 손)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8시～오후4시)
☎ : 531－2689

인형만드는 재봉사 구함
인형만드는 10명의 재봉사와
카터와 끝맺음 하시는분 구함
경험 있으신 분은 포맨(FOREMAN)으로씀
500 KEELE ST. UNIT 408
☎ : 762－7241

회계사 구함(상점경험 요함)
자격 캐나다 대학이나 칼리지 이수
히스 CO. ☎ : 261－2914

GAS ATTENDANT구함
☎ 782 6311

공장에서 꾸준히 일할 한국 남자를 구합니다.
스카보로 지역에 위치함.
문의처 : BILLO ☎ : 690－5177

매주 일요일만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 : 531－0277 (Mrs. 황)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매매및 양도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가정형편상 급히 처분하고자 함)
☎ : 526－7179 해밀톤
(오전10시～오후5시 연락바람)

급 매
카메라 스토아(전자제품 일부포함)팝니다.
619 BLOOR ST. W.
☎ : 534－1085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742－1281 (Mrs. 최)

2DOOR COOLER 매매
거의 새것임
☎ : 298－3584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ROYAL TRUST
극장및 3개의 가게가 달린 코너에 있는 부동산
매매(블루어 선상에 있음)
극장(580석). 모든장비.
면적(6,000스퀘어피트, 파킹장소 있음
써브웨이 부근.
보다 자세한 정보는
☎ : 532－3391, 924－0117 (KISHOR JANI)

성업중인 레스토랑 매매3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피크링프라자(2개 스토아중 선택)
주매상 : $8000—(1600또는3300스퀘어피트)
에스킹 : $89,000＋스탁
● 오샤와(MAIN ST)
주매상 : $9000(INCLUDING LUNCH COUNTER
＋로타리 티켓)
렌트 : $375, 아스킹 : $42,000＋스탁
※BAGOT REALTY INC(REALTOR)
☎ : 1－579－4010
AFTER HOURS 683－8154 프랜크·마그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
7721 YONGE ST & CENTRE

집매매 또는 세놓음 ; 학교와 교통편리 ☎ : 368－9018
4 BDRM. 2 W.R.M. REC.RM. C.AIRCON.
ROYAL YORK RD. AT MANCHESTER ST.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스토아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함
☎ : 621－3412. 231－5351

집·방세·하숙

6RM HOUSE FOR RENT(도바코트와 칼레도니아근처)
, 버스정유장 근처. 렌트 : $600＋유지비
☎ : 533－4481(마이클)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둘째2번째 서쪽날에서 내리면 됨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R) 281-1954Mrs남

태 권 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 기 점

조율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수리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3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가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요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8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